

# 문화서울

2026 05 VOL.231

서울,  
예술이 되다

문화서울



③ SEOUL +	04	이달, 주목할 문화예술 소식
	08	인포그래픽 봄, 바야흐로 축제의 계절
	09	문화의 창 훈련에서 숙련까지, 아리랑이 지닌 무게 The Weight of Arirang: From Practice to Spectacle
	40	지금, 서울다움 한강에 흐르는 건축과 자연 Architecture and Nature Along the Han River
	52	로컬 리포트 구민들을 지역예술가 팬으로-광진문화재단 박계배 사장
① FOCUS + 도시, 축제, 봄의 장면들	24	에세이 요즘 우리는 하루 종일 맑음
	26	미리보기 마음껏 흔들려도 좋은 시간, 서울서커스페스티벌2026
	31	미리보기 봄을 깨우는 가족 나들이, 어린이·가족 예술축제 '톡톡'
	32	미리보기 어른이 된 소년소녀를 위한 정원 음악회, 서울스테이지 in 정원
	37	미리보기 푸른빛으로 물드는 우리의 시절, 노들노을스테이지
② ARTS +	14	예술과 기술, 그다음 좋아진 세상이 좋은 세상인가?
	46	예술가의 진심 금배섭, 몸으로 이야기하는 삶
	55	페이퍼로그 "우리의 이용자는 미래에 있다" 이지희 아키비스트
	58	예술인 아카이브 고요손
	60	예술인 아카이브 이승진
④ CULTURE +	16	복지국가와 예술 유령의 시간을 수놓다
	18	인사이드 서울, 문화예술, 미래, 다음세대가 엮은 그물망
	44	해의는 지금 노르웨이의 헨리크 입센 가꾸기

발행인 송형중 편집 총괄 이주영 기획·편집 나혜린 사진 (재)서울문화재단 편집·디자인 designikki 번역 evener 인쇄·제작 더프레스(주)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A.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T. 02.3290.7124 F. 02.6008.7347 W. www.sfac.or.kr E. monthly@sfac.or.kr  
 ISSN 1739-774X 웹진 www.sfac.or.kr/magazine 인스타그램 @monthly\_sfac 등록번호 동대문, 라00036 발행일 2026년 4월 30일  
 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의 창조적 힘과 시민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기사는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문화+서울]은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독자를 위해 데이지(DAISY) 파일을 제공합니다.



# 아리랑 · 가족 예술 축제 톡톡

2026.  
05.02.토,  
05.0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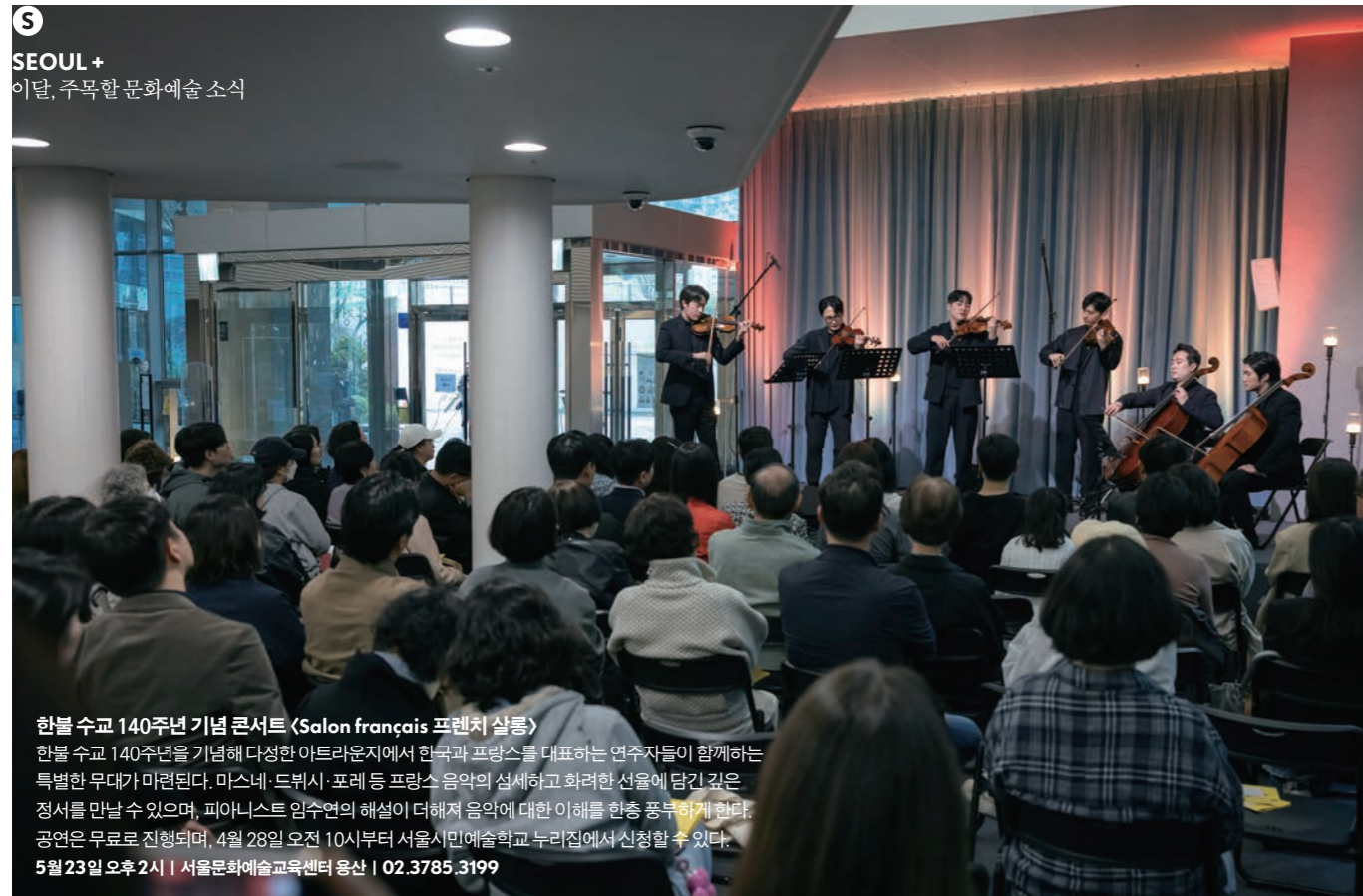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 서서울호수공원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 축제 북돋움



3

SEOUL +  
이달, 주목할 문화예술 소식



**한불 수교 140주년 기념 콘서트 <Salon français 프렌치 살롱>**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한국과 프랑스를 대표하는 연주자들이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가 마련된다. 마스네·드뷔시·포레 등 프랑스 음악의 섬세하고 화려한 선율에 담긴 깊은 정서를 만날 수 있으며, 피아니스트 임수연의 해설이 더해져 음악에 대한 이해를 한층 풍부하게 한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4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민예술학교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5월 23일 오후 2시 |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 | 02.3785.3199**



**서리풀 악기거리 토요일 브런치 투어**  
 클래식 음악 공연 관람부터 브런치 식사와 바이올린 제작 체험, 악기상점 라운딩, 갤러리 전시 관람까지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서리풀 악기거리 '토요일 브런치 투어' 패키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6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리풀 악기거리 일대에서 열리며, 서초구 관내 초등학교 3~6학년생과 보호자가 2인 1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초문화재단 누리집에서.  
**02.3474.2912**



**서울발레시어터 <피터팬>**  
 영등포문화재단 영등포아트홀은 공연장 상주단체 서울발레시어터의 창작 발레 <피터팬>을 선보인다.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발레를 즐길 수 있도록 대사와 연기를 접목한 것이 작품의 특징이며, 화려한 플라잉 액션과 우아한 발레가 어우러진 '발레칼ballet-cal'의 보여준다. 공연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영등포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5월 23일과 24일 | 영등포아트홀 | 02.2629.2250**



SEOUL +  
이달, 주목할 문화예술 소식

**2026 피크닉 in 나무**

답답한 도심 속, 오아시스 같은 음악 축제. 전 세대가 음악으로 화합하고 즐기는 대구모야의 콘서트 <피크닉 in 나무>가 올해도 찾아온다. 국카스텐, 엑스AUX·박소연, 리튬엔젤스예술단, 광진구연합합창단 등 다양한 세대의 음악이 선사하는 특별한 공연을 통해 도심 속 일탈을 즐겨보자.  
5월 16일 오후 6시 | 서울어린이대공원 숲속의무대 | 02.2049.4700



**영유아 예술 체험 <동그라미, 세모, 네모>**

우리 아이의 첫 예술 경험! 금천문화재단은 공연장상주단체 터루와 함께 국악을 매개로 한 영유아 체험을 마련했다. 양육자와 영유아가 함께 다양한 감각으로 작품에 참여하며 소통과 교감의 시간을 가져볼 수 있다.  
5월 29일과 30일 | 금천뮤지컬센터 | 070.4172.4084

**혁 Hug**

장주 2026. 4.17.주.19:30 4.18.토.14:00  
서울 2026. 5.8.주.19:30 5.9.토.14:00

대학로극장퀴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협력 <혁\_Hug>

알.에이컴퍼니가 선보이는 무용 작품 <혁\_Hug>은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몸에 축적된 기억과 흔적을 움직임으로 풀어낸다. 들숨을 뜻하는 '혁', 접축을 의미하는 '허그'를 통해 경험으로 흔적을 남기는 몸에 집중한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이지만 어느새 나와 먼 이야기처럼 스쳐간 경험을 되새기는 시간.  
5월 8일과 9일 | 대학로극장퀴드 | 1899.5566

**아파, 구보씨**

장주 2026. 4.24.주.19:30 4.25.토.14:00  
서울 2026. 5.15.주.19:30 5.16.토.14:00

대학로극장퀴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협력 <아파, 구보씨>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각색한 음악극으로,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두 인물의 우연한 연결을 통해 자기 삶을 마주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1930년대 경성의 소설가 구보와 2020년대 서울의 편집자이자 작가 지망생 구보람이 라디오를 매개로 서로의 삶을 들여다본다. 이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펼쳐질까.  
5월 15일과 16일 | 대학로극장퀴드 | 1899.5566



**소월아트홀에서 떠나는 유럽여행 콘서트**

여행의 설렘을 가득 싣고 소월아트홀 무대 위에서 유럽으로의 이륙이 시작된다. 매 공연 전석 매진 전화를 쓰고 있는 <소월아트홀에서 떠나는 유럽여행 콘서트>가 올해, 역대급 라인업으로 돌아왔다. 음악·영상·해설이 어우러진 100분간의 유럽 낭만 여행을 즐길 기회.  
5월 22일과 23일 | 소월아트홀 | 02.2204.7574

**제16회 대한민국발레축제**

2011년 시작해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대한민국발레축제가 '공명echo'이라는 주제 아래 발레를 통해 사회적 공감과 예술적 울림을 확산하는 축제 라인업을 발표했다. 축제는 5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예술의전당과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된다. 대표 작품으로는 패션 디자이너이자 연출가 정구호의 신작 <정구호의 TALE OF TALES-이야기들의 이야기>, 미디어아트 그룹 무토MUTO와 안무가 최수진·이루디가 함께하는 <발레아리랑> 등이 있으며, 유니버설발레단·서울시발레단 등 국내 대표 단체가 함께한다.

**<아름다움을 나누는 마음-새로 맞이한 기증유물전>**

국립중앙박물관은 상설전시관 기증4실에서 최신 기증 문화유산을 특별 공개하는 전시를 연다. 경주 이씨 이연 선생의 기증 문화유산 9점이 최초로 공개되며, 1860년 작 <이유원 초상> 등 작품이 주목할 만하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후로도 기증자의 뜻을 기리는 다양한 전시를 이어갈 예정이다.  
7월 19일까지 |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기증 4실 (205호) | 02.2077.9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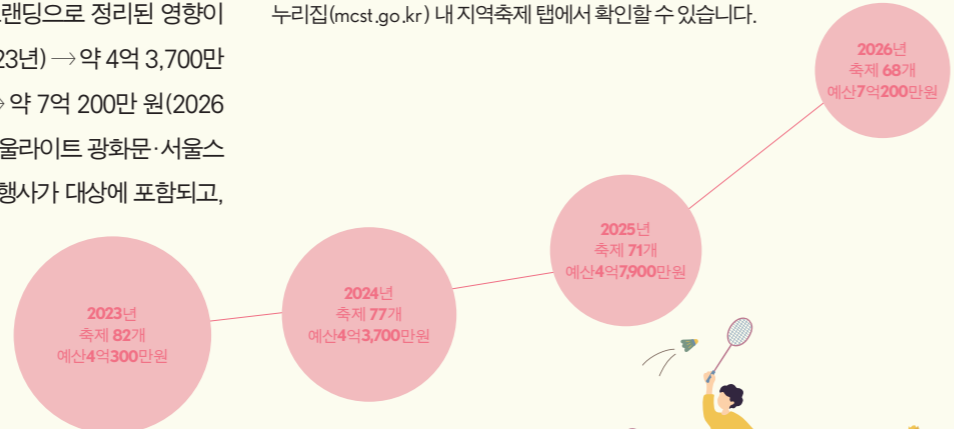
## 봄, 바야흐로 축제의 계절

일 년 내내 생동하는 도시 서울을 상징하는 이미지 중 하나는 곳곳에서 펼쳐지는 축제 현장일 것이다. 저마다 매력을 뽐내는 사계절에 맞춰 펼쳐지는 다채로운 축제가 시민의 일상을 문화예술로 화려하게 채색하고 있다. 서울 안에서 개최되는 축제 현황을 살펴보면, 팬데믹으로 인해 2022년 급감했다가 2023년 82개까지 회복한 후 2024년 77개 → 2025년 71개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2026년에는 68개 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표면적으로는 축제 수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서울원터페스타·서울스프링페스타처럼 분산해 진행되던 축제가 하나의 브랜딩으로 정리된 영향이 크다. 축제당 평균 예산은 약 4억 300만 원(2023년) → 약 4억 3,700만 원(2024년) → 약 4억 7,900만 원(2025년) → 약 7억 200만 원(2026년)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특히 올해 통계는 서울라이트 광화문·서울스프링페스타·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같은 대규모 행사가 대상에 포함되고,

근 몇 년간 중단된 이태원지구촌축제가 재개되며, 강남페스티벌(강남구)·서리풀뮤직페스티벌(서초구) 등 자치구에서 10년 넘게 꾸준히 이어온 축제의 예산이 꾸준히 증가한 영향이 크다.

지역구 기준으로 올해 가장 많은 축제가 개최되는 장소는 종로구(10개, 중복 포함) → 영등포구(8개) → 강북구(5개) → 마포구(4개) 순으로 나타났다. 축제가 개최되는 시기는 가을(9~10월)에 몰려 있으며, 이어 봄(4~5월) 시즌에도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문화재단이 준비한 가족 예술축제 '축제 봄봄' 역시 5월 1일부터 9일까지 노들섬과 서울숲·서서울호수공원 등 서울 곳곳에서 펼쳐진다.

해당 내용은 서울문화재단에서 진행한 2023 서울문화지표 조사연구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지역축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서울문화재단 누리집(sfac.or.kr)과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mcst.go.kr) 내 지역축제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훈련에서 숙련까지, 아리랑이 지닌 무게

조세린 배재대학교 교수

가야금 연습은 한국에서 나의 일상 중 하나다. 연습을 하지 않는 건 스승과 관객, 그리고 나의 악기인 가야금을 둘러싼 전통에 대한 결레라는 것을 오래전 체득했다. 하지만 미국 알래스카에 체류한 지난겨울 휴가 동안 시차 적응, 부상, 가족 및 친구들과의 일정, 치위도 치위도 끝이 없는 눈과의 사투가 평소라면 느꼈을 연습에 대한 절박함을 몰아냈다. 연습 일과, 연습실, 평소 사용하는 악기에서 멀어지자 아니나 다를까 한국음악의 살아 있는 음, 소리와도 소원해지고 말았다.

무대로 돌아오자 이내 게으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 거친 명주실에 손가락을 재무장하고, 내가 복귀하는 말든 냉담한 가야금과 화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가야금은 '사정을 봐주고' 오랜 시간 방치된 연인처럼 무대 위의 나를 대한다. 가야금과 나의 이런 불화 속에

서는 관객과 진심 어린 교감을 나눌 여지가 많지 않다. 물론 우리 사이의 오랜 유대는 다시금 회복되며, 소리에 대한 영원한 탐구 또한 재개된다.

올해 내가 겨울철 공백 이후 복귀하여 악기와의 물리적 업보를 치르는 동안 서울의 심장부에서는 다른 종류의 복귀가 펼쳐졌다. 지난 3월 20일, BTS가 신보 『아리랑 ARIRANG』을 발매하며 광화문 한복판의 무대로 컴백했다. 공연장 인근에서 도망쳐 나왔다는 죄책감을 느낀 나는 대전 집에 도착한 뒤 넷플릭스가 '짠' 하고 우리 집으로 배달해준 초대형 라이브 공연 영상을 보기 위해 대블릿을 작동시켰다.

한국 전통음악에서 아리랑은 남쪽이든 북쪽이든 국경을 만무하고 한국인에게 가장 친숙한 곡이다. '아리랑'의 유네스코 등재를 앞두고 중국과 한국 간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던 2010년대 초반, 나는 국립국악원의 영문 학술지 'Korean Musicology Series'의 아리랑 관련 부분을 검수하며 아리랑의 역사와 반복에 더 익숙해졌다. 이듬해에는 중국 베이징과 홍콩에서 한국음악의 무형유산 등재를 축하하는 일종의 한국 측 우승 세리머니인 김희정 작곡가의 '아리랑 뉴웨이브 Arirang, The New Waves'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했다.

아리랑은 단일하지 않고 정해진 형태도 없다. 단순히 9/8 박자 세마치장단의 곡이

라기보다는 국가의 지형·음악적 역사를 모두 포괄하는 악곡이다. 한국에는 다양한 지역에 따라 50여 종의 2천여 아리랑이 존재한다. 오늘날 한국인에게 가장 익숙하고 BTS가 모티프로 차용한 아리랑은 서울·경기 기반 악곡으로, 나운규 감독의 1926년 작 영화 <아리랑>의 주제가이며 ‘현대적 스타일’로 편곡된 곡이다. 그러니까 20세기 영화음악인 셈이다.

여기에 BTS가 본인들만의 해석을 내놓는다. 공식 선공개 프로모션에서 BTS의 ‘아리랑’을 “깊이 있는 전통 감정과 현대 글로벌 사운드의 융합”으로 소개한 기획자는 이렇게 덧붙였다. “단순한 컴백이 아닌 새로운 시대를 정의할 앨범입니다.” ‘아리랑’의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에 마이클 허트 교수는 ‘등쳐먹기 쉽지 않지, K-팝에겐 힘들지 않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하이브와 BTS에게 정말 그렇지 않냐며 질문을 돌려줬다. 허트는 무대에 대해 전 세계 관객에게 콘텐츠를 판매하기 위해 문화적 뿌리를 “노천 채굴”하는 행위에 비유하며 리뷰를 이어갔다.

뿌리 깊은 구전 전통을 현대 사회에 없으려면 세계적인 대중문화 모델이 피해가도록 설계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국제 무대가 요구하는 것은 바다를 건널 만큼 가볍되 동시에 전통의 뿌리에서 나온 아리랑이다. ‘Aliens’를 예로 들어보자면, BTS는 다양한 여러 장단 속에서 ‘중모리’라는 사금을 캐내어 장단을 음악에 녹여내 청자로 하여금 서서히 손뼉을 치며 그 ‘현대적 동력’에 리듬을 타게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구식 4/4 박자가 앨범을 정복하며 심지어 아리랑마저 그 소용돌이 속으로 빨아들인다. 외국인같이 느껴지도록 만든 곡에 실체 없는 전통 장단의 이름을 쓰는 건 내게는 BTS 프로모션 기획자들이 주장하는 ‘깊이 있는 전통 감정’이라는 휘핑크림 위에 올라간 통조림 채리처럼 보인다. 내 수업을 듣는 한국인 학생 중 중모리장단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으며, 이는 컴백 공연 전에도 후에도 여전하다.

나는 집에 앉아 광화문에서의 공연이 전 세계의 입맛에 맞춰 국악을 체계적으로 경시해 이를 시각적 장관으로 전락시키는 모습을 보았다. 오프닝 배경인 ‘교화하는 빛의 문’, 즉 광화문은 저녁내 사방에 깔린 특수효과 안개로 명확히 보이지 않았다. 한 때 세종대왕이 백성을 돌보던 ‘월대’에 설치된 BTS의 검은색 무대 바깥에 자리한 국립국악원의 일류 서도민요 소리꾼과 연주자들은 그날 밤 한국어로 노래를 부른 유일한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마이크와 조명을 받지 못했다. 내게는 시종일관 이 젊은 친구들의 마음이 아리랑과 공명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하이브와 넷플릭스가 선보이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 같은 새로운 교수익성 브랜드의 스트리밍 서비스 방영 첫날 같았다. 김도현 음악평론가가 자신의 리뷰에서 BTS의 『아리랑』을 컴백 앨범이 아닌 “일종의 구조 신호처럼 들린다”고 기술한 이유 역시 비슷할 것이다. 어떤 무대든 결례를 범하는 데는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대개는 진지함 부족과 본인 역량에 대한 과대평가가 그 핵심 원인이다. 한국 무대라는 맥락에서 국가적 음악 전통을 가장 눈에 띄게 증폭시키는 아리랑을 꺼내 들 때 그 무게는 거대하고 무거울 수

있다.

BTS는 한 시간 동안 조선 시대 왕들의 장소에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업고 넷플릭스를 발판 삼아 국악의 공간을 점유했다. 하지만 이들이 활용하려 한 아리랑, 즉 발명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십 리의 눈길을 천천히 헤쳐 나가야 만날 수 있는 전통적인 아리랑은 찾기 어려웠다. 진정한 ‘깊이 있는 전통 감정’은 매끄러운 중모리장단이나 단 한번의 ‘얼쑤’에 있는 게 아니라, 박혔다가 사라졌다 다시 박히는 굳은살, 머리와 가슴이 재구성될 때까지 되풀이되는 박자, 그리고 충실한 존중 속에 있다. 그 속에서 만 전 세계가 진정한 아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The Weight of Arirang: From Practice to Spectacle

Jocelyn Clark Professor, Pai Chai University

Practicing *gayageum* is one of my daily routines in Korea. I learned long ago that, if I don't practice, I risk disrespecting my teachers, audiences, and the traditions surrounding my instrument, the *gayageum*. But, during my winter semester break in Alaska, my fight with jet lag (and, this year, an injury), visits with family and friends, and the endless battle to free the sidewalk of snow crowd out the urgency I normally feel to practice. Distance from my practice routine, practice space, and my normal instrument inevitably leads to estrangement from *sori*, the living tones of Korean music.

When I do return to the stage, I immediately pay for my neglect. It takes time to re-armor my fingers against rough silk strings and break through my instrument's indifference to my return. My *gayageum* “knows the score” and treats me

on stage like a long-ignored lover. There is little room for heartfelt connection between me and an audience amid such domestic strife. Our long-held bond must be reestablished, the never-ending quest for *sori* renewed.

This year, as I was still wrestling with the physical demands of my instrument after my winter hiatus, a different kind of comeback was unfolding in the heart of Seoul. On

March 20, BTS returned to the stage at Gwanghwamun with a concert and album titled *Arirang*. Perhaps out of guilt for having just fled the very neighborhood where the concert was taking place, when I got home to Daejeon, I fired up my tablet to gaze at the massive, live spectacle Netflix so effortlessly delivered to my apartment.

In the realm of Korea's traditional music, *Arirang* stands as the song most familiar to Koreans—across all borders. During the period of the *Arirang* registration war that raged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at UNESCO in the early 2010s, I became more familiar with *Arirang*'s history and iterations through editing the *Arirang* volume of the National Gugak Center's *Korean Musicology Series* (2012). The following year, I participated in composer Dr. Cecilia Kim's "Arirang, The New Waves" project, which she took to Beijing and Hong Kong in a kind of victory lap after Korea prevailed over China in securing Intangible Heritage registration rights to the song(s).

*Arirang* is not only plural but also amorphous. Rather than a single song in the 9-beat *semachi* rhythm pattern, it embodies the country's geographic and musical history. Korea has about 2,000 "pieces" and 50 "types" of *Arirang* songs from various regions. The version of *Arirang* that today's Koreans are used to hearing, and that BTS features, is rooted in Seoul/Gyeonggi and was arranged in 1926 in a "modern style" to accompany Na Un-gyu's film *Arirang*. It is a 20th century movie soundtrack.

BTS has offered its own update. Official pre-release promotions announced BTS's *Arirang* as "blending traditional emotional depth with a modern global sound." "This isn't just a comeback; it's a defining new era." "Are you ready for the ARIRANG era?," promoters asked. In his review, titled "Pimpin Ain't Easy but K-Pop Makes it Look Effortless," Michael Hurt turned that question back on HYBE and BTS: "Are you?" He went on to describe the event as "strip-mining" cultural roots for content to sell to a global audience.

To carry deeply rooted oral traditions forward into our modern world requires the paying of a toll that the global pop model is designed to bypass. The international stage demands a version of *Arirang* that is light enough to travel, while the tradition itself is defined by its rootedness. For instance, in the song "Aliens," having mined enough raw material to find flakes of *jungmori* gold among all the various rhythm patterns, BTS might have incorporated the *jangdan into the music* so that we really could slowly clap and groove to its "moderate drive." Instead, western-style 4x4 time colonizes the album, sucking into its vortex even *Arirang* itself. For me, name-checking an unembodied traditional rhythm pattern in a song about being made to feel like a foreigner seems to put a metaphorical Maraschino cherry on top of the whole canned whipped cream of

"traditional emotional depth" that BTS's promoters are claiming. None of my Korean students knew what *jungmori* was before the concert, and they still don't now.

At home, I watched as the Gwanghwamun concert systematically subordinated *gugak* to visual spectacle to feed a global appetite. Opening with the "Gate of Transformative Light" obscured by fog machines in a way set up the whole evening. The top notch *Seodo Minyo* singers and instrumentalists from the National Gugak Center, situated outside BTS's black framed stage on the "Moon Viewing Platform" from which King Sejong once addressed the people, were the only singers to sing in Korean that night but were not properly mic-ed or lit. Throughout, it felt to me like the young men's hearts weren't in a relationship with *Arirang* but on a first date arranged by HYBE and by Netflix for the streaming service's lucrative new *K-pop Daemon Hunters*-adjacent global brand. This may be why Kim Do Heon, in the title of her review, described BTS's *Arirang* as "Not a Comeback Album" but "A Distress Signal."

There are many ways to disrespect the stage (*any* stage), but it most often boils down to a lack of seriousness and overestimation of what you think you know and can embody. In the context of the Korean stage, to hold the *Arirang* mic—the most prominent amplifier of Korea's national music traditions—can be a heavy lift.

For an hour, standing on the site of Joseon Kings, supported by the state and platformed by Netflix, BTS occupied the space of *gugak*—國樂—the music of the nation. But the *Arirang* they were trying to leverage—the traditional *Arirang* found in the slow, unglamorous clearing of the *10 li* snowy path over and over again until your feet hurt—was hard to find. True "traditional emotional depth" resides not in frictionless talk of *jungmori* and a single *colssu*, but in callouses formed and lost and re-formed and in rhythms played repeatedly until the brain and heart are rewired... true respect. Only then will the whole world *feel Arirang*.

# 좋아진 세상이 좋은 세상인가?

이진준 미디어 아티스트, KAIST 아트앤테크놀로지 센터장

1683년 설립된 영국 애시몰턴 박물관은 루브르보다 110년, 대영박물관보다 70년 앞선 세계 최초의 대학 박물관이다. 다 빈치와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소장된 그곳에 얼마 전 나의 박사학위 논문 'Empty Garden'이 한국 현대 작가의 작업으로는 처음 정식 구입, 영구 소장돼 국내외의 주목을 받았다. 논문의 저자 작품인 이 작업은 2020년 옥스퍼드 대학 학위논문 심사에서 만장일치로 '수정 없음(No Corrections)' 판정받은 뒤, 다시 5년에 걸친 박물관의 독립 심의를 거쳐 컬렉션에 편입됐다. 왜 하필 '빈 정원'이었을까.

'Empty Garden'은 길이 10미터의 한지 두루마리 아홉 권으로 이뤄져 있다. 독자는 페이지를 넘기는 대신 몸을 움직이며 그것을 따라 읽는다. 텍스트를 읽는 일이 곧 공간을 거니는 일이 되도록 만든 것이다. 이 작업의 출발점에는 박

사 과정 중 다리를 심하게 다쳐 오래 고생하던 경험이 있다. 몸이 약해지고 이동이 어려워지자 나는 오히려 몸과 감각, 그리고 움직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때 내게 중요한 단서가 된 것은 조선 문인의 '의원(意園)' 개념이었다.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정원이 아니라, 더 이상 멀리 산수를 유람할 수 없는 이들이 마음속에 가꾸던 정원이다. 없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허구만은 아니다. 비어 있지만, 그 빈자리 속에서 감각과 사유가 다시 살아나는 공간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기술 문명은 비어 있는 것을 좀처럼 견디지 못한다. 무엇이든 기록하고 저장하고 계산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야 안심한다. 우리는 데이터를 말할 때 거의 언제나 같은 비유를 쓴다. 자원, 연료, 자산. 채굴하고, 처리하고, 축적하고, 소비하는 대상이라는 뜻이다. 생성형 AI는 이 질서를 극단까지 밀어붙인다. 수많은 이미지와 문장을 순식간에 만들어내고, 알고리즘은 감정을 분류하며, 플랫폼은 기억을 대신 저장한다. 효율은 높아졌지만, 그만큼 인간의 감각은 점점 희미해진다. 모든 것이 더 빨라지고 더 편리해졌는데, 정작 우리는 더 깊이 느끼고 있는가. 세상은 좋아졌는지 몰라도, 과연 그것이 좋은 세상인가 하는 질문이 생긴다.

정원으로 돌아가보자. 자연미를 추구하는 한국의 정원은 자연을 완전히 지배하거

나 과도하게 설계된 대상으로 만들지 않는다. 햇빛의 방향을 읽고, 물의 흐름을 살피고, 바람과 그림자의 변화를 기다린다. 때로는 손대지 않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행위가 되기도 한다. 비워두는 것 역시 하나의 형식이다. 동아시아 건축에는 '차경(借景)'이라는 말이 있다. 바깥의 풍경을 안으로 빌려와 공간의 일부로 삼는다는 뜻이다. 나는 우주야말로 차경과 가장 잘 어울리는 풍경이라고 생각한다. 먼 하늘과 별빛을 바라보며 그것을 마음 안으로 들여오는 순간, 무한한 우주도 하나의 정원이 된다.

나는 이러한 태도를 '데이터 가드닝(Data Gardening)'이라고 부른다. 데이터를 즉시 소비되는 정보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스며들고 해석과 돌봄이 개입하는 대상으로 대하는 일이다. 빠르게 생산하고 폐기하는 대신, 멈추고, 살피고, 기다리며, 때로는 비워두는 것. 예술가는 이제 데이터를 더 많이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데이터와 감각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가꾸는가를 묻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데이터가 '정보'의 차원으로 머무를 때 그것은 곧바로 소모되지만, 감각과 사유를 통과할 때 비로소 '지혜'의 차원으로 옮겨갈 수 있다.

이 생각은 나의 최근 작업에서도 이어진다. 지난해 지드래곤과 협업한 <굿모닝, 미스터 지드래곤>은 인간의 생체 데이터를 감정의 지도처럼 변환한 뒤, KAIST의 위성 기술을 통해 우주로 전송하는 실험이었다. 그 작업에서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몸에서 출발해 우주를 향해 건네는 하나의 신호이자 의례였다. 또 다른 작업 <시네 포레스트: 동화>에서는 800개의 AI 에이전트와 대규모 합창단, 오케스트라, 그리고 관객의 움직임이 함께 분당 중앙공원 숲 전체를 하나의 미디어 생태계로 만들었다. 중요한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이 만들어내는 분위기와 몸의 경험이다. 사람은 화면을 바라보는 관객에 머무르지 않고, 견고 숨 쉬고 머무르며 풍경 속에 스스로를 놓게 된다.

나는 포스트 AI 시대에 가장 먼저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이런 '분위기'라고 생각한다. 분위기는 언어로 설명되기 전에 몸이 먼저 감지하는 것이다. 공간에 들어서면 순간 피부가 먼저 알아채고, 눈보다 호흡이 먼저 반응하는 감각이다. 모든 것을 즉시 산출하고 즉시 반응하게 만드는 체계 속에서, 우리는 설명되지 않는 여백과 머뭇거림, 그리고 천천히 형성되는 감정을 잃어가고 있다.

서울의 문화도 이 질문 앞에 다시 서야 한다. 기술을 더 빠르게 도입하는 도시가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기술 앞에서 예술의 힘으로 잠시 멈출 수 있는가, 효율과 속도의 명령에서 한 걸음 물러나 인간의 감각과 몸이 다시 살아날 자리를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정원은 그런 공간이다. 생명이 자라고 쇠하고 다시 돌아오는 시간을 품은 채, 돌봄과 기다림과 비움이 함께 존재하는 장소다. 도시 역시 그래야 한다. 그래야 서울은 단지 더 좋아진 도시가 아니라, 정말로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다.

# 유령의 시간을 수놓다

최정삼 보건복지부 행정사무원

어두운 공중에 상들이리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 유리 알갱이처럼 보이는 결정들이 아래로 흘러내리며 빛을 흩뿌린다. 빛이 흔들리자 형상이 뒤따라 아른거리고, 표면은 그 떨림을 붙잡듯 미세하게 반짝인다. 자세히 보면, 이 상들이리의 윤곽은 희미하다. 어느새 빛은 얼룩으로 변한다. 금빛이 붉게, 붉은빛은 다시 보랏빛으로 스며들며 형상이 서서히 번진다. 시선은 더 이상 사물의 외곽을 따라가지 못하고, 표면에 맺힌 떨림을 더듬듯 머문다.

함경아의 자수 작품 〈당신이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다섯 개의 도시를 위한 상들이리〉 연작은 가까이 다가갈수록 형상은 지워지고, 비단실의 광택과 바늘 자국이 남긴 점상의 흔적만이 남아 있다. 작품 제원에 기입된 노동 시간은 화면 위의 실 타래와 호응한다. 상들이리는 보이지 않는 시간의 더께를 가시화하고, 시간이 매달려 있는 구조가 된다. 제목이 암시하듯,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유령의 현전이다.

함경아는 대문 밑으로 날아든 북한 빠라를 계기로 2008년부터 자신만의 ‘예술적 빠라’를 북으로 보내기 위해 자수 작업을 선보였다. 빠라는 적대적인 체제의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공중에 흩뿌려진다. 이 전단을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이동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체제를 뒤흔들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만이 중요하다. 함경아의 작업은 이 일방적 전달 구조를 뒤집는다. 메시지의 내용보다, 그 메시지가 어떤 경로를 거쳐 이동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다루기 시작한 것이다. 단순히 메시지

를 보내는 대신, 메시지가 이동한 경로 전체를 화면 안으로 끌어들인다. 도안은 디지털 파일로 출력돼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 북한의 익명 자수 장인들에게 전달된다. 이들은 수개월에 걸쳐 한 땀씩 바느질하고, 완성된 자수는 다시 중개인의 손을 거쳐 작가에게 돌아온다.

도안은 국경과 검열을 통과해야 한다. 무사히 도안이 전달되더라도 자수 장인이 어떻게 작업할지 통제할 수 없다. 무수한 블랙박스를 지나면서 도안과 실제 자수의 결과물은 전혀 다른 색감과 형상이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 간극은 오히려 작업을 가시화한다. 검열을 통과하기 위해 추상화된 형상은 모순을 폭로한다.

이 과정에서 이름 없이 이동하고 기록 없이 소모된 유령들이 화면 위로 돌아온다. 빠라가 내용을 남기고 과정을 지운다면, 함경아의 자수는 형상을 희미하게 해 제작과 전달의 과정을 드러낸다. 자수는 유령을 재현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도록 배치된 시간이 오히려 가장 또렷한 흔적으로 남는다. 자수<sup>자수</sup>와 자수<sup>자수</sup>가 포개진다. 지워진 존재가 형상의 표면을 통해 거꾸로 모습을 드러낸다. 화면 위에 꿰어진 실이 만들어내는 밀도는 보이지 않는 시간을 자수한다.

이 상들이리와 자수를 볼 때,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바뀐다. 사회 안전망과 제도는 이미 존재하는 불확실성을 은폐하고 지연한다. 우리는 제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많은 불안정이 보이지 않게 가려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사회 제도 안에서 노동은 ‘고용’, ‘생산성’, ‘참여율’ 같은 지표로 쉽게 환원된다. 그리고 삶을 실제로 떠받치는 돌봄과 가사, 헌신의 시간은 그 바깥에 남겨진다. 관건은 사회적 보호를 확대하는 데 있지 않다. 어떤 시간과 노동을 우리 사회가 호명하고 인정할 것인지에 있다. 즉, 무엇을 ‘노동’이라고 부르고 가치 있다고 여길 것인지의 문제다. 가족과 일상, 사랑과 의무로 여겨져 이름 붙지 못한 시간들. 낸시 폴브레가 말하듯, 사회를 지탱하는 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환원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가슴 The Invisible Heart’에 놓여 있다.

함경아의 상들이리에는 유령이 남기고 간 발자국처럼 매달려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상들이리의 형상만을 보지 않는다. 그 형상을 가능하게 한 시간과 노동의 흔적을 감각한다. 이 흔적은 우리가 복지국가의 성벽 안에서 안락함을 누리고 있을 때, 그 안으로 흩뿌려진 빠라처럼 작동한다. 설득하거나 설명하지 않으면서 사회 제도가 의지해온 조건을 드러낸다. 보이지 않는 조건들이 시야에 들어올 때, 제도는 멈춰 선 구조가 아니라 끊임없이 다시 짜여야 하는 과정으로 변모한다. 오래도록 비가시화된 노동과 시간이 비로소 호명되고, 목소리를 얻는다.

공중에 매달린 상들이리처럼, 그 흔적들은 어디에도 완전히 닿지 못한 채 미세하게 흔들린다. 빛나는 장식처럼 보이던 세계의 형상 또한, 보이지 않는 시간 위에 매달린 채 조용히 흔들린다.

→ 62쪽  
함경아, 〈당신이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다섯 개의 도시를 위한 상들이리 BR 01-04〉, 2016-17

# 서울, 문화예술, 미래, 다음세대가 엮은 그물망

정리 나혜린 서울문화재단 커뮤니케이션팀

성함과 자기소개  
# 최근 관심사  
# 주목하는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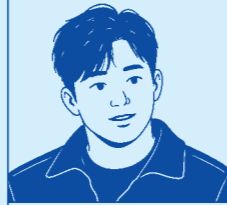
예술가의 창작 현장과 시민이 이를 향유하는 순간은 단순히 하거나 표면적인 시선으로는 포착하기 어렵다. 서울문화재단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서로 다른 배경과 문제의식을 지닌 젊은 연구자들과 도시의 문화예술을 다시 읽고자 한다. '서울문화예술 미래연구자 네트워크'는 특정한 결론을 도출하기보다 공공의 관점에서 현장을 탐색하고 질문을 축적해가는 공동 연구 기반이다. 4월 활동을 시작한 참여자들은 월별 세미나와 리서치 트립, 자율 연구와 토론을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간다. 이 과정에서 각자의 질문은 개별의 탐색에 머물지 않고 공통의 맥락에서 확장되고 재구성된다. 올해 처음 시작한 네트워크에는 미래연구자 16명이 참여한다. 서로 다른 출발점에 서서 형성한 질문들은 이곳에서 교차하고, 때로는 긴장을 이루며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낸다. 이들에게 자기소개와 함께 '서울'과 '문화예술', '네트워크'에 관한 생각, 최근 주목하는 주제에 관한 인사이트 등 다채로운 이야기를 들어봤다.



**강부민**

시각예술을 기반으로 비평과 기획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안정적 창작 환경  
#오구로구

'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라는 질문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매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환경이 창작자와 기획자 모두를 소진시킨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술 지원이 일회성 프로젝트를 만드는 일을 넘어, 창작 환경을 지탱하는 안정적인 토대가 될 수는 없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다정하고 치열하게 대화하며 서울문화재단과 파트너가 고민의 무게를 나누는, 그리하여 서울문화예술 미래연구자 네트워크가 실천적 실험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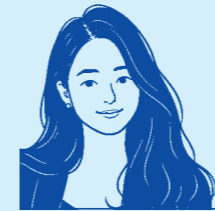


**김민성**

공연예술과 영상예술 사이를 오가며 콘텐츠를 기획하고 만듭니다.  
#관객참여 #시민예술교육  
#광진구

아직은 미비할 수 있지만, 지속되는 목소리는 결국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네트워크를 통해 현장·정책·사람이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장면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현장의 실천이 정책으로 이어지고, 정책이 다시 사람과 공간 속에서 작동하며, 그 과정이 다시 새로운 실천으로 환류되는 구조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세 요소가 종종 분절돼 작동해왔다면, 앞으로는 유기적으로 서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인상 깊은 발견은, 도시 전체를 하나의 무대로 전환하고 시민이 관객을 넘어 배우로 참여하는 <리모트 서울> 공연이었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예술이 더 이상 특정 공연장이나 전시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도시라는 일상적 공간 속으로 스며들어 그 자체

를 매개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공간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관계를 생성하는 장치가 되고, 시민은 수동적인 감상자가 아니라 예술을 함께 구성하는 주체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결국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했던 '무대/객석'의 구분을 흐리게 만들고, 예술의 경계를 도시와 일상으로 확장하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도시 공간을 기반으로 한 참여형 예술이 어떻게 새로운 관계와 경험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것이 시민의 감각과 인식, 나아가 도시를 바라보는 방식까지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보고 싶습니다.



**기수경**

사용자 데이터 기반 UX·DX 연구와 ESG 경영전략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성과 경험 설계의 원리를 다뤄왔습니다.  
#접근성  
#서초동 #영국 런던

보통 '배리어프리'라는 표현에 더 익숙할 텐데,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느낀 것은 접근성이 특정 집단을 위한 별도의 지원이 아니라 더 많은 시민이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조건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장애인 문화 소외 문제에서 출발했지만,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유아차를 동반한 보호자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경험의 제약과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접근성을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게 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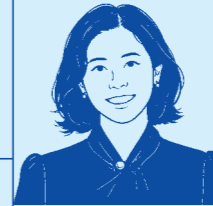


**김경한**

망원동에서 '소그룹(sogroup)'이라는 공간을 운영하면서, 대학원에서는 문화예술공간과 도시계획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공간 #문화접근성 #문화도시계획  
#망원동

2020년부터 갤러리 공간을 운영하다가 2026년 들어 폐업했습니다. 살아남기 바쁘던 이전과 달리 그만두고서야 체감되는 건, 결국 사라진 공간이었습니다. '많은 공간이 사라졌구나. 그리고 그 기록이 없어졌구나.' 2000년

대에는 소셜미디어 없이 잡지나 '네오룩' 같은 플랫폼에 일부 기록됐고, 현재는 인스타그램에 주로 기록이 남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연시하는 인스타그램도 언젠가 서비스가 중단되는 날이 오면 이 기록을 모두 옮기는 작업이 필요하거나 '진짜' 사라지겠지요. 그래서 문화예술 공간을 기록하되 위키Wiki와 같이 운영자 또는 누구나 기록·수정하는 형태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라진 공간들도 전시·기획·운영 경험이 있는 사람 누구나 기록할 수 있고 기억을 맞춰가면 좋을 것 같았죠. 그래서 '문화위키서울'이라는 플랫폼을 기획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드는 인사이트(culturewikiseoul.com)를 공유드립니다.



**김길현**

미국에서 15년 이상 대중의 예술 접근성을 다양한 시각에서 탐구하고 현장에서 실천해온 연구자입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 기반 문화예술 공간  
#미국 오하이오 콜럼버스

최근 연구를 통해 느낀 점은, 시민 참여가 단순히 '참여 기회'의 유무'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프로그램이나 공간이라도 사람들이 그 공간에 대한 소속감을 어떻게 느끼는지에 따라 참여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참여를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넘어, 시민이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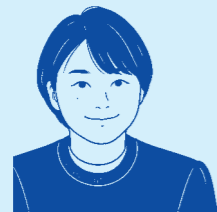
**김민정**

학부에서 미술이론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사회학을 공부했습니다.  
#시각예술 #도시 브랜딩  
#망원동

최근 개관한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이 위치한 서울 서남권을 살펴보면, 광역 문화시설과 기초 문화기관이 같은 생활권 안에서 각자의 역할에 맞는 방식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역동 자체는 반갑지

만 그 에너지가 실제 주민의 일상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는 아직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기획자·학예연구사·예술가가 저마다의 현장에서 축적하는 감각들이 서로 만나 언어화되고, 그것이 다시 지역 주민의 삶과 연결되는 흐름이 네트워크를 통해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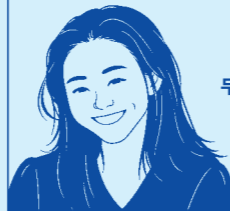
문화시설이 늘어날수록 예술이 일상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흔히 기대합니다. 그런데 서울의 동네들을 살펴보면 공간의 거리가 좁혀졌다고 해서 경험의 거리도 함께 좁혀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시대 미술은 함께 보고 해석하고, 때로는 어리둥절해하며 천천히 이해해가는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미적 경험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함께할 수 있는 조건을 찾는 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인경**  
대학원에서 기록관리학을 전공하고, 항공사진기록의 활용에 관한 연구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기록을 통한 공공과 시민의 연결  
오연남동 '끝남동 세모길'

항공사진기록을 연구하며 특정 장소에 대한 기억이 개인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깨달았습니다. 기차역이나 오래된 아파트, 마을의 나무 한 그루처럼 너무 익숙해 의식하지 못했지만, 갑자기 사라졌을 때 상실감이 크게 느껴지는 장소가 누구에게나 있지요. 그럴 때 남겨진 사진 한 장을 바탕으로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위안을 얻고, 또 현재의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제 관심사는 전시나 영화와 같은 시각 매체에서 공적 기록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 과정에서 아키비스트의 역할은 무엇인지입니다. 예술가와 시민사회, 마을공동체 등 다양한 주체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달할 때, 공공 아카이브는 그들의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시각예술 활동에서 주로 활용되는 기록의 유형과 특성이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의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파악해 더 많은 사람이 아카이브와 가까워지고 기록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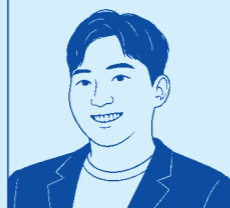
**박유란**  
무대 위, 공연장 근처에서 창작 작업을 합니다.  
#지원제도 오지역 축제

창작자로서의 '지원제도'가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요원한 키워드입니다. 최근 다년에 걸친 창작지원을 받게 되면서, 창작 과정에서 생겨나는 관계나 여건이 수많은 선택을 좌우한다는 느낌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과정에서 생겨나는 창작이 '서울'이라는 도시와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관람자의 형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드는 요즘입니다. 최근 서울무용창작센터와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이 개관함에 따라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좋은 작품을 보는 것보다, 작품과 마주치는 시민을 관찰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박지현**  
경제일간지에서 14년 차 기자로 활동하며, 최근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경영전문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예술산업의 미래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 오연남동 및 흥대

예술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들의 관심사가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미래를 가능하게 해주는 지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예술산업이 영속하기 위해서는 예술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반응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술 창작자와 소비자 간 피드백이 선순환하는 과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백준형**  
AI로 예술과 기술의 관계를 연구하고 작품을 만듭니다.  
#문화예술 데이터  
오을지로·세운상가 오대전

문화예술 현장의 사람들이 축적된 데이터를 직접 들여다

보며 자신의 다음 걸음을 가능하는 장면을 보고 싶습니다. 예컨대 중견 작가가 자신의 활동 궤적을 데이터로 확인하고, 아직 만나지 못한 기관이나 기획자를 발견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정보가 존재해도 서로에게 닿지 못하는데, 이 네트워크가 그 연결의 출발점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국 근현대 미술가 495명의 73년간 경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같은 기관에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패턴이 커리어 정체와 연결되며, 이 현상이 경력 초반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약 10년 후부터 가시화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현상이 인정을 많이 받은 작가일수록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인데, '성공하면 더 성공하기 쉽다'는 통념에 질문을 던지는 결과입니다. 성공이 관계적 고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 발견이 현장과 정책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네트워크에서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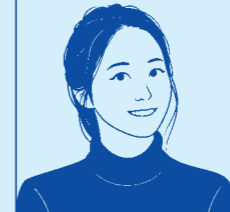


**배혜은**  
베이징대학교에서 예술관리·문화산업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중 문화예술 교류 현장을 기록해왔습니다.  
#서울의 문화 불균형 오베이징 798 예술구  
오상하이 웨스트번드 예술지구

최근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문화예술지구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하는지의 문제입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자주 다니는 대학로는 1980년대 국가 주도로 조성된 공간이지만, 이후 소극장과 청년 예술가들이 모여들면서 한국 공연문화의 중심지로 자리잡았습니다. 위에서 만들어진 공간이 아래로부터의 에너지를 만났을 때 비로소 살아있는 장소가 된다는 것, 그 과정이 지금 세계 곳곳의 문화예술지구 조성 논의에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문화 불균형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오래 붙들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한 곳에 뿌리를 두고 살아온 서울 시민으로서, 문화 인프라와 기회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현실을 가까이서 체감해왔기 때문입니다. 서울 동북 4구의 문화 지형을 연구하고 있는 지금, 이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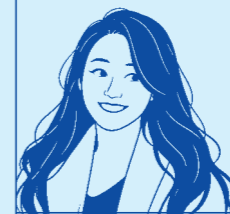
균형을 데이터와 현장의 언어로 구체적으로 짚어내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해인**  
계간지 「공연과 이론」의 편집위원으로 일하는 공연예술평론가입니다.  
#공간성  
오신촌 '경의선 숲길' 오영국 코벤트가든

최근 가장 오래 붙잡고 있는 키워드는 공간성입니다. 연극은 해화, 클래식 음악은 서초, 국악은 장충동에 거점을 마련하고 있어 속한 지역에 따라 향유할 수 있는 예술도 달라진다는 점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든 연극을, 클래식 음악을, 국악을 향유할 수 있는 지역 다양성과 예술 대중화를 꿈꿉니다.

서울문화예술 미래연구자 네트워크를 통해 '지면의 부족함'에 대해 논해보고 싶습니다. 공연예술의 경우 최근 기술의 발달로 영상촬영이 보편화됐지만, 영상으로 남은 공연이 과연 실제의 공연과 같은 예술 창작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남습니다. 가나긴 생명력을 지닌 기록물은 결국 글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그림**  
미술과 사회를 매개하는 시장과 제도를 연구하고, 전시를 기획합니다.  
#예술과 시민의 관계  
오종로구 오충남동 당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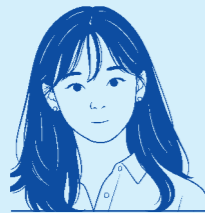
저는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경험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특히 창작자·기획자·연구자, 그리고 정책 담당자가 동일한 지원사업을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비교해보고 싶습니다. 제도는 하나의 언어로 설계되지만, 그것이 현장에서 작동하는 방식은 각자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지원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평가하는 정책 담당자와의 대화를 통해, 정책 설계의 의도와 현장의 해석 사이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최유정**

예술을 기획하고 연구합니다.  
#지역 소속감 및 정체성 오복춘

서울 시민을 공연장으로 향하게 만드는 요인을 분석하면서, 공연 관람 활동은 지역 차이보다 개인적 속성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공공 공연장 수가 지역 주민의 공연 관람 활동과 큰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은 이미 일정 수준의 공공 공연장을 확보한 만큼, 이제는 시민이 공연예술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단계적으로 확장해갈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지원 정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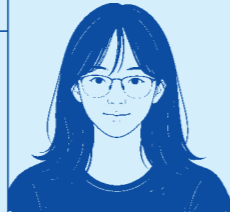
**최지예**

미술관과 비엔날레를 중심으로 전시 기반 연구와 공공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기획자입니다.  
#지역성 오프라인 오프라인 카셀

저는 주로 타지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서울을 중심이자 단일한 주체로 인식해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 서울문화재단의 '지역 생태계 기반 창작 거점 활성화' 과제를 보며, 서북권의 무용, 서남권의 시각예술처럼 자치구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문화 클러스터와 정체성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활동에서 이러한 거점이 형성·확장되는 구조와 운영 방식, 그리고 지역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을 기획·운영하는 재단 실무자와 현장 예술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기도 합니다.

최근 제가 얻은 인사이트는 문화사업에서 '성과'보다 '관계의 지속성'이 더 중요하게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단발성 프로젝트보다 형성-심화-확장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이 있을 때, 참여자 간 형성된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이후 협업과 실천으로 지속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

다. 사업이 끝난 뒤에도 남는 건 수치적인 성과가 아니라 그 관계의 축적이고, 결국 그게 지역 문화 생태계를 지탱하는 핵심 자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서연**

서울에서 인터랙티브 미디어를 가르치고, VR·실험영화·미디어 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불균형과 예술적 경험  
오성복동오프라인 오프라인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났을 때 생기는 어긋남이나 불균형을 어떻게 예술적 경험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표현 방식을 가진 학생들의 다양성을 충분히 끌어내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한편, 최근 지원사업 중심의 흐름 속에서 작업이 특정 방향으로 고착화되는 경향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문화예술 미래연구자 네트워크에서 만난 분 중에 기자나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흥미로웠습니다. 현장에서 문제를 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판단해온 것들을 글이나 수치로 짚어내고 계신 방식이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문제에 접근하고 감각해온 방식을 다른 언어로 풀어내고 계신 것 같아서 관심이 갑니다.

# 도시, 축제, 봄의 장면들

반복되는 계절이지만, 어떤 봄은 유난히 오래 마음에 남는다.

이번 호 특집은 우리의 일상에 스며든 '봄'의 온도를 만끽하며

함께 머물고 웃으며 추억으로 남은 시간의 의미를 들여다본다. 놓치기 쉬운 순간을 꼭 붙잡기 위해

서울 곳곳에서 열리는 축제와 함께 이번 봄을 '머무는 시간'으로 남겨보는 건 어떨까.

지금, 이 계절을 가장 생생하게 즐기고 기억하는 방법이 돼줄 것이다.

# 요즘 우리는 하루 종일 맑음

장혜선 음악칼럼니스트

아이의 하원 길, 아직 해가 기울지 않은 하늘. 낮의 온기가 완전히 식지 않아 공기는 부드럽게 데워져 있다. 아이는 집에 가기 전 아이스크림을 사달라며 보챈다. 땀지락거리며 움직이는 작은 손짓이 사랑스럽다. 느슨한 평온. 봄이 왔다는 걸 온몸으로 체감하는 순간이다. 아이를 키우니 계절감이 달라진다. 예전에는 계절이 그저 옷의 두께를 바꾸는 일이었다면, 지금의 계절은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온도로 느껴진다.

워킹맘인 나는 아이를 비교적 이른 시기에 어린이집에 보냈다. 아이는 연장반까지 하루를 온전히 기관에서 보낸다. 밀린 일을 겨우 매듭짓고 숨이 차게 달려가면, 늘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건 우리 아이였다. 적막한 공간, 그 안에 조용히 남아 있는 작은 등을 마주할 때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든다. 그것은 어쩌면 죄책감에 가까운 것이어서, 해가 서둘러 저무는 계절일수록 더 짙어진다. 가을과 겨울, 어둠이 빠르게 내려앉는 날이 되면 그 마음 또한 유난히 오래

머문다. 그런데 봄이 오면, 모든 감각이 달라진다. 하원 길에 아직 해가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묘하게 들뜬다.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돌아오는 길, 고층 아파트 사이로 번지는 빛이 우리를 감싼다. 발걸음은 조금 느려지고, 웃음은 이유 없이 번진다. 따뜻하게 남아 있는 햇살이 어깨 위에 내려앉을 때면, 그 순간만으로도 충분해진다. 사소해 보이는 이 빛의 차이가, 아이와 보내는 나날을 한층 더 찬란하게 만든다.

아이를 키우기에는 봄이 좋다. 겨울 동안 우리는 주로 실내에 머문다. 살을 에는 추위를 피해 아웃렛이나 키즈카페 같은 공간을 전전한다. 같은 장소를 반복해서 찾다보면 아이는 금세 따분해하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감염에 대한 걱정도 따라온다. 무엇보다 '오늘은 어디를 가야 할까' 끊임없는 고민이 육아를 은근히 지치게 한다.

하지만 봄은 다르다. 집 앞 공원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단지 내 놀이터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시간은 자연스럽게 흐른다.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 바람은 은은하게 번지고, 그 사이를 스치는 꽃 냄새. 봄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특별한 계획 없이도 충분히 낭만적인 하루를 허락하는 계절이다.

아이를 키우며 또 하나 달라진 것이 있다. 바로, 축제를 바라보는 시선이다. 주말이 오면 자연스레 고민이 번진다.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향해야 할까. 입장료에 식사까지 더하면 하루에 10만 원은 훌쩍 소비하는 요즘, '하루를 보내는 일'은 생각보다 큰 비용을 동반한다. 그런 일상에서 축제는 더없이 반가운 선택지로 다가온다. 무료로 열리는 공연, 몸으로 경험하는 각종 프로그램, 가볍게 손에 쥘 수 있는 먹거리들. 그리고 해가 기울고 불꽃이나 드론이 하늘을 밝히는 순간까지 더해지면, 이보다 완벽할 순 없다.

인천의 신도시, 송도에 살고 있는 나는 계절이 바뀔 즈음이면 자연스레 이곳에서 열리는 축제들을 기다리게 된다. 송도해변축제·송도맥주축제, 이름만 들으면 어

른들을 위한 자리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가족 단위 풍경이 더 익숙하게 펼쳐진다. 푸드트럭 앞에서 아이와 함께 음식을 고르고, 음악이 흐르는 공간에 나란히 앉아 시간을 보낸다. 30개월이 된 우리 아이는 태어나 지금까지, 해마다 이 축제들을 함께 지나왔다. 지난 주말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인들이 주변에서 열린 축제를 다녀온 모습을 봤다. 같은 도시 안에 있으면서도 이런 소식을 놓쳤다는 사실이 괜히 아쉬워, 뒤늦게 관련 정보를 찾아보며 내년을 기약한다. 부모가 되니, '어디에서 무엇이 열리는지'를 아는 일이 중요해진다.

이제는 여행을 떠나는 방식도 달라졌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곳에서 열리는 축제를 찾아보는 것. 최근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됐을 때도 그랬다. 아이를 함께 데려가기로 마음먹자마자, 가장 먼저 '논산딸기축제'를 검색했다. 예전의 나왔다면 스쳐 지나갔을 정보다. 숙소를 고르는 기준조차 축제와의 거리로 옮겨갔다. 그렇게 이어진 하루는 특별한 장면을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다.

음악을 사랑하고, 그것을 업으로 삼고 있지만, 어린이와 공연장을 찾는 일이 아직 쉽지 않다. 숨을 죽이고 앉아 무대를 바라보는 시간은, 우리에게서 떠나면 풍경이다. 그래서인지 더욱, 자유롭게 뛰놀며 몸으로 감각할 수 있는 축제의 공간이 고맙게 느껴진다.

도시와 지역의 축제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을, 아이를 키우며 비로소 알게 됐다. 축제는 한 도시의 리듬을 바꾸고, 사람들의 일상에 작은 들뜸을 선사한다. 특히 가족에게 축제는 곧 추억이다.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다. 같은 공간에 머물며 같은 공연을 보고, 음식을 나눠 먹고, 함께 웃는 일. 그런 순간들이 겹치며 어느새 우리의 시간이 된다. 봄은 그런 시간을 가장 자연스럽게 허락하는 계절이지 않은가. 5월, 문화로 언제나 풍성한 서울 곳곳에서도 다양한 축제가 펼쳐질 것이다. 아이의 손을 잡고,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하러 가야겠다.

# 봄봄, 축제와 함께 봄

## 마음껏 흔들려도 좋은 시간 서울서커스 페스티벌 2026

류한영 서울문화재단 축제제작팀

### 내 안의 탐험가를 깨우는 첫 번째 관문, '서커스 랜드'

매년 이맘때면 한강 노들섬에는 조금 생경하고도 반가운 풍경이 펼쳐진다. 높다란 장대에 몸을 기대고, 허공에 매달린 사람을 보며 잠시 숨을 멈추는 사람들. 2018년 문화비축기지에서 시작해 2023년 열린송현 녹지광장을 거쳐 2024년부터 노들섬에 자리잡은 서울서커스 페스티벌이 다시 우리 곁을 찾았다. 올해 노들섬은 단순한 공연을 보는 장소가 아니라, 방문객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서커스 랜드'라는 거대한 놀이 공간으로 변신한다.

섬에 발을 들이는 순간, 당신은 관람객이 아니라 이 세계를 살피는 탐험가가 된다. 입구에서 마주하는 '서커스 챌린지'는 그 여정의 시작이다. 아슬아슬한 타이트

와이어 위에서 중심을 잡고, 홀라후프를 돌리고 디아볼로를 직접 다뤄보며 서커스라는 장르를 감각으로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다. 특히 어린이를 위해 준비된 다양한 '서커스 놀이터' 프로그램은 서커스가 어렵고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누구나 도전하고 즐길 수 있는 놀이임을 자연스럽게 알려준다. 정해진 순서 없이

받길 닿는 대로 머물며 나만의 경험치를 쌓아가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축제가 된다.

체험을 통해 서커스의 언어를 익혔다면 이제는 국내외 유수의 예술가들이 펼칠 공연에 몰입할 차례다. 한국 서커스의 산증인 동춘서커스와 사이키델릭 록밴드 전과상사가 함께 만드는 공연 <신바람 동춘>은 올해 축제의 하이라이트다. 넓은 천막이 주는 향수와 폭발적인 라이브 사운드가 만날 때, 노들섬에 세대를 아우





르는 새로운 에너지가 생겨난다. 해외 초청작 역시 각기 다른 매력을 뽐낸다. 영국 노핏 스테이트 서커스 NoFit State Circus의 <밤부 Bamboo>는 대나무 구조물 사이를 누비며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장관을 연출하며, 스페인 이프 서커스 If Circus의 <배꼽-기억 뜨개>는 뜨개질이라는 일상의 행위를 서커스로 승화해 관람객에게 다정한 위로를 전한다. 서커스 랜드의 지도를 따라 걷다보면, 이처럼 시대와 국경을 넘어선 다양한 몸짓을 곳곳에서 마주하게 된다.

### 함께 만들고 채워가는 축제

축제의 라인업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우리 고유의 해학이 담긴 제이아이예술단의 <K-줄타기>는 긴장감 넘치는 줄 위에서 나누는 재담으로 활기를 더한다. 공연장작집단 사람의 <숨>은 상공 30미터 밧줄 위에서 펼치는 고공 퍼포먼스로, 중력을 거스르는 신체 움직임을 통해 삶의 경계를 예술적으로 풀어내며 압도적 긴장감을 선사한다. 또한 클라이밍과 서커스를 결합한 역동적 퍼포먼스 <클라이밍&서커스>는 인간이 제약을 이겨내는 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준다. 이 모든 움직임은 노들섬의 풍경 속에 녹아들어 관람객이 어느 시간대에 머물더라도 자신만의 서커스 이야기를 완성할 수 있게 돕는다.

공연과 체험 외에도 노들섬 곳곳에서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메인 무대로 향하는 길에서 마주하는 '리스테이지 서울 쇼룸'에서는 피에로와 마술사 콘셉트의 의상과 소품을 구경할 수 있고, 노들갤러리 1관에서 열리는 전시 <해 지기 전에 들어와>에서는 한때 어린이였을 부모님이 자란 집을 테마로 옛날 가전·가구 등을 통해 부모님의 어린 시절 하루를 가늠해볼 수 있다.

곳곳에 마련된 포토존은 방문객이 서커스 랜드의 일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공연 사이의 시간을 메우며 시민이 노들섬에 머무는 모든 순간을 축제의 일부로 만든다. 서커스는 추락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실패해도 무한한 반복을 통해 결국 성공에 이르는 예술가의 움직임을 보며 우리는 다시 일상을 버텨낼 작은 힘을 얻는다. 5월의 햇살 아래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하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그리하여 올해 서울 서커스페스티벌에서 당신만의 가장 따뜻한 봄날을 발견해볼 수 있기를 바란다.

**서울서커스페스티벌2026**  
5월 4일과 5일 | 노들섬  
인스타그램 @ssaf.official  
"동심을 찾아 떠나는 서커스 랜드, 어른도 어린이날!"





# 봄을 깨우는 가족 나들이 어린이·가족 예술축제 '톡톡'

이사회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센터양천팀

5월에 부는 봄바람은 어디든  
걷고 싶게 만든다. 특히 아이  
와 함께 봄 소풍을 떠날 계획  
이라면 서서울호수공원 일원  
에서 진행되는 어린이·가족  
예술축제 '톡톡'을 눈여겨보  
자. 서울의 서쪽, 서서울호수  
공원의 풍경과 서울문화예술  
교육센터 양천의 공간이 연  
결되며 '톡톡'의 배경이 된다.  
이곳에서 공연과 체험, 퍼레  
이드가 한 흐름으로 이어지  
기 때문이다.

을 깨우는 프로그램이 이어  
진다. 서커스 <더 해프닝쇼 마  
이드림>과 <순간들>, 어린이  
연극 <이야기 양동이>는 일  
상적인 공간에 새로운 리듬  
을 더한다. <와글와글 예술놀  
이터>, <물감 툽! 캔버스 놀이  
터>, <꿈꾸는 세계>, <호랑이  
를 담은 부채>, <해피 대디>,  
<나만의 퍼레이드 오브제>는  
축제가 펼쳐지는 공간을 관  
람 장소에 머물지 않게 하며,  
직접 만들고 남기고 움직이

는 참여 공간으로 바꾼다.

## 거인의 보폭으로 시작되는 상상

축제의 첫 장면은 5.5미터 높이의 대형 인형극 <피노  
키오>가 연다. 요정들의 몸짓으로 깨어난 거대한 나무  
인형이 관객과 함께 걷는 순간, 익숙한 공원의 길은 무  
대로 바뀐다. 해가 지면 <보라매와 아이>가 그 흐름을  
잇는다. 빛과 음악을 따라 가족이 '빛의 원정대'가 되  
어 호수공원의 밤을 건너는 이 퍼레이드는 낮과는 다  
른 풍경을 펼쳐 보인다.

이번 축제는 영유아부터 조부모까지 참여 대상을 넓  
게 열었다. 영유아가 연주자 가까이에서 자유롭게 음  
악을 감각하는 <헬로우! 베이비 모차르트>, <베베 음  
악요가>, 조부모와 손주가 한 팀이 되어 호흡과 균형  
을 나누는 <손주와 함께하는, 발레 첫발>, 아빠와 눈과  
발을 맞춰보는 <아빠랑 왈츠파티>는 가족과 함께하는  
예술 경험의 폭을 좀더 확장하는 시도다.

'톡톡'의 핵심은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와 서서  
울호수공원, 공연과 체험, 관람과 참여를 하나의 흐름  
으로 묶는 데 있다. 가족과 시민은 그저 관람자에 머무  
르지 않고, 공간을 오가며 축제의 순간을 함께 만들어  
간다. 아이에게는 예술을 몸으로 감각하는 시간이, 부  
모에게는 관계의 리듬을 다시 발견하는 순간이, 조부  
모에게는 다시 한번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시간이 된다. 그이틀 동안 양천의 봄 풍경은 관람  
의 배경이 아니라 예술과 참여가 함께 놓이는 자리로  
바뀐다.

## 익숙한 풍경을 낯설게 깨우는 이들의 여정

대형 퍼레이드와 공연 사이에는 가족들의 몸과 감각

**어린이·가족 예술축제 '톡톡'**  
5월 2일과 3일 |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서서울호수공원  
인스타그램 @wsartedu  
"아이와 함께, 온가족의 예술 첫 경험"

## 어른이 된 소년소녀를 위한 정원 음악회 서울스태이지 in 정원

강민정 서울문화재단 문화 확산 기획팀

봄날의 서울숲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갤러리가 된다. 화사하게 피어난 꽃들과 짙어지는 녹음 사이로 따사로운 봄볕이 내려앉고, 정성껏 가꿔진 다채로운 정원에 돛자리를 펴고 앉아 풍경을 눈에 담기만 해도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계절.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간지럽히는 반가운 음악까지 더해진다면 어떨까. 시민의 일상 공간을 근사한 예술 무대로 탈바꿈

시키는 도심형 음악 공연 '서울스태이지'가 5월,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손잡고 아주 특별한 음악 소풍을 준비했다.

이번 서울스태이지 주제는 '어른이 된 소년소녀에게 건네는 위로'다. 바쁜 일상을 벗어나 정원을 찾은 시민이 자연 속에서 어린 시절의 멜로디를 들으며 온전한 휴식과 심리적 위로를 얻을 수 있는 힐링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1970~80년대, 골목 어귀에 밥 짓는 냄새가 퍼질 무렵이면 엄마가 차려줄 저녁을 기다리며 브라운관 앞에 바짝 다가앉아 만화영화에서 눈을 떼지 못하던 꼬마들. 어느새 부모가 돼 아이 손을 잡고 정원을 찾은 그 시절의 꼬마들에게 다시 브라운관 앞의 소년소녀로 돌아가게 만드는 마법 같은 시간을 선사하고자 한다.

5월 1일 오후 5시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부모 세대에게는 코끝 찡한 향수를, 아이들에게는 신선한 호기심을 선사할 추억의 음악이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꽃내음과 어우러져 따스한 봄바람을 타고 울려 퍼질 예정이다.

공연의 백미인 메인 기획공연 <정원 속 명작극장>은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테마로 관람객을 맞이한다. 5월 6일에는 월드뮤직트리오 반디가 '아빠의 영웅들'이라는 콘셉트로 가슴을 쿵쾅거리게 했던 열혈 로봇과 영





용들의 주제가를 연주한다. 이어 7일에는 가야금밴드 서정민트리오가 25원 가야금 특유의 영롱하고 섬세한 음색으로 요술봉을 휘두르던 ‘엄마의 비밀친구들’을 소환한다. 두 공연 모두 정원의 별이 가장 따스한 오후 2시와 4시에 서울숲 야외무대에서 펼쳐진다. 하이라이트는 5월 9일이다. 반디와 서정민트리오가 한 무대에서 만나 펼치는 협연은, 엄마와 아빠의 각기 다른 어린 시절 추억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감동적인 순간을 선사할 것이다. 특히 이날 공연은 무대를 노들섬으로 확장해, 해 질 무렵인 오후 5시에 시작해 노들과 함께 더욱 낭만적인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축제의 낭만은 5월 내내 계속된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와 4시, 바쁜 일상에 쉼표가 필요할 때 서울숲을 찾아 정원의 화려함과 음악의 선율로 눈과 귀를 행복하게 채워보는 건 어떨까. 14일에는 재즈 피아니스트 성기문 트리오가 경쾌한 ‘재즈 놀이터’를 열어 다정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21일에는 매력적인 선율을 자랑하는 바이올리니스트 탁보너 밴드가 5월의 정원을 신비로운 ‘마법의 정원’으로 물들일 예정이다. 여유롭게 감상하는 것을 넘어 가족이 함께 완성하는

특별한 시간도 빼놓을 수 없다. 5월 28일에 진행되는 ‘건반 위의 동화’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만화영화 사운드트랙을 한 피아노로 직접 연주해보는 특별한 무대로 꾸며진다. 조금 서툴러도 괜찮다. 고사리 같은 아이의 손과 조금은 투박해진 어른의 손이 교감하며 만들어내는 하모니는, 그 어떤 거장의 연주보다 더 아름다운 음악이 될 테니 말이다. 바쁘게 어른의 삶을 살아내느라 잠시 잊고 지냈던 내안의 어린아이에게 다정한 위로를 건네는 시간. 올봄에는 가벼운 듯자리 하나 챙겨 들고 가족과 함께 서울숲과 노들섬으로 향해보는 건 어떨까. 푸른 정원 속, 당신을 기다리는 그리운 영웅과 비밀 친구들이 잊지 못할 5월의 하루를 선물할 것이다.

**서울스태이지 in 정원**  
 5월 1·6·7·14·21·28일 | 서울숲  
 5월 9일 | 노들섬  
 인스타그램 @seoul\_stage  
 “부모 세대의 유년기를 추억하는 음악”



## 푸른빛으로 물드는 우리의 시절 노들노을 스테이지

연재인 서울문화재단 노들섬사업팀

젊음을 뜻하는 ‘청춘 靑春’을 직역하면 ‘푸른 봄’이다. 가장 찬란한 시절을 노래하기에 봄처럼 다정한 계절이 또 있을까? 서울숲에서 새긴 추억과 서서울호수공원에서 마주한 가족과의 첫 예술 경험, 그리고 노들섬에서 발견한 동심을 지나, 5월 6일부터 9일까지 노들섬은 청춘의 푸른 빛으로 물든다.

올해 ‘노들노을스테이지’는 노을빛 아래 선율이 흐르는

공연과 추억을 담아낸 전시를 준비했다. 스테이지는 6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야외 버스킹으로 시작한다. 해가 부드럽게 고개를 숙이는 저녁 6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청춘 예술가들이 한 시간 동안 거리 위에서 청춘을 노래한다. 봄날의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소중한 사람과 특별한 순간을 만날 수 있다.

9일에는 실내의 곳곳을 아우르는 다양한 공연이 준비돼 있다. 청춘의 타오르는 열기와 흔들리는 감정을 담아내는 밴드 토키이Tokai, 맑고 단단한 음색으로 한국대중음악상이 주목한 싱어송라이터 주혜린, 그리고 솔직하고 씩씩한 하이틴-너드팝으로 마음을 두드리는 밴드 프랭클리FRankly가 청춘의 다양한 순간을 그려낸다. 본 공연은 ‘놀티켓’에서 사전 예매를 진행하고 있다. 잔디마당 야외무대에서는 강렬하고 상쾌한 사운드로 청춘의 이야기를 전하는 밴드 페퍼톤스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오랫동안 청춘의 대표곡으로 사랑받아 온 노래들과 함께, 가족과 청춘에 대한 관객 사연을 나눌 예정이다. 특히 이날 야외무대는 5월 첫날부터 9일간 이어진 가족 예술축제 ‘축제 봄봄’의 피날레를 장식

한다.

페퍼톤스 공연에 앞서,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서울서커스페스티벌의 ‘포스트맨’, 어린이가족예술축제 ‘톡톡’의 마스크트인 대형 인형극 <피노키오>, 힘찬 만화영화 사운드트랙 메들리로 모두의 동심을 깨우는 서울스테이지의 <아빠의 영웅들과 엄마의 비밀친구들> 공연이 준비된다. 가정의 달을 맞아 준비한 전시는 세대와 시절을 잇는 따

뜻한 통로가 된다. 노들갤러리 1관에서 열리는 <해지기 전에 들어와>는 한때 누구나 어린이였던 부모님이 자란 집을 테마로, 옛날 가전·가구·의복 등을 통해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일과를 체험해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노들갤러리 2관의 <봄날의 곡을 좋아하세요?>는 음악을 통해 시대별 청춘의 향수를 자극한다. LP와 카세트 테이프를 지나 CD와 MP3 플레이어 거쳐 현재의 유튜브 플레이리스트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매체와 대표곡을 통해 청춘의 한 편을 지켜온 음악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돌아본다.

푸른 하늘이 붉은 노을에 스며들듯, 파란 시절을 지나 황혼에 접어든 부모님과 함께 와도, 이제 막 그 시간을 지나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와도, 혹은 혼자 와도 괜찮은 곳. 노들섬 노들노을스테이지에서 각자의 시절을 나누는 이 시간이 작은 위로가 돼 가장 푸른 봄의 한 페이지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노들노을스테이지**

5월 6일부터 9일까지 | 노들섬  
인스타그램 @nodeul\_island  
“온 가족을 아우르는 음악나들이”

연간 시계와 함께 서울문화재단

노들노을  
시계이끼

**관람객 안내사항**

1. 무대 앞쪽부터 차례대로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공연이 시작된 후에는 지면입장 및 중간입장이 제한됩니다. (무대 전환시에만 중간 입장 가능합니다.)
3. 소량의 주류와 음식은 반입이 허용되나, 뜨거운 국물이나 향이 강한 음식은 제한됩니다.
4. 함께 즐기는 공연을 만들기 위해 공연 중 주변에 피해가 갈 수 있는 취식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SEOUL MY 연간 시계와 함께 서울문화재단 노들노을



# 한강에 흐르는 건축과 자연

## Architecture and Nature Along the Han River

울프 마이어 건축가, 『서울 속 건축』 저자  
Ulf Meyer Architect, Author of the Seoul: Architecture Guide



©서울관광재단

한국이 거처온 놀라운 경제 성장 현상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린다. 여기서 한강은 사실 흥미로운 건축물과 장소가 많은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 자체를 기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서울 도시 건축의 정점이자 자연 및 야생을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일련의 명소를 형성하고 있는 건 맞다. 4대강 중 하나인 이 위대한 한강은 드넓은 강줄기가 도시 한가운데를 관통해 흐르며, 이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특징이다. 강폭은 여러 지점에서 1킬로미터가 넘고 강 전체에 교량만 32개에 달한다.

‘큰 강’이라는 의미를 지닌 ‘한강(漢江)’을 따라 자리한 현대 건축물 중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은 영등포구에 있는 반짝이는 금빛의 ‘63빌딩’이다. 미국 유명 건축 회사 스킨모어, 오잉스 앤드 메릴(Skidmore, Owings & Merrill, SOM)이 설계해 1985년 완공했다. 서울에 있는 고층 건물 중에서도 유명한 편이지만, 이 유명세는 단지 거대한 금괴 같은 모습 때문만은 아니다. 과거 ‘금니’라는 별명으로도 불렸던 이 빌딩은 한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여의도 중추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249미터의 높이로 개장 당시 북미를 제외한 지역에서 가장 높았으며, 2003년 목동 하이퍼리온이 그 기록을 깨기 전까지는 한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다. 이름이 말해주듯 건물의 층수는 63층, 한강 상류 지역에서 열린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을 앞두고 완공되었다. 현재는 보험사 및 은행 등의 본사로 이용되고 있다. 58층과 59층에는 레스토랑이, 60층에는 전망대가 있으며 맑은 날 이곳을 찾은 방문객은 저 멀리 인천까지 볼 수 있다. 건물 남측 외벽의 유리 엘리베이터를 타면 올라가는 동안 도시를 조망할 수 있다. 저층에는 상점, 아이맥스 영화관, 수족관, 컨벤션 센터, 레스토랑이 자리잡고 있다. 저층이 고층보다 더 넓은 구조 때문에 아래가 치마처럼 부드럽게 퍼지는 독특한 형상이 되었다.

여의도의 ‘금니’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인상적인 푸른색 돔 지붕의 국회의사당 역시 영등포구에 위치한다. 1975년 김정수·김중업·이광노·안영배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 건물을 설계했다. 국회의사당은 정부의 입법부가 소재한 곳으로 이전에는 일제 강점기의 잔재인 옛 일본 총독부 청사를 사용했다. 24개의 대형 화강암 기둥과 흰색 외부 마감재는 인근에서 이 건물을 시각적으로 가장 돋보이게 한다. 아시아 최대의 국회 건물이자 여의도 도시 개발에 있어 지주 역할을 한 국회의사당의 내부는 등근 지붕 아래의 로텐더홀을 중심으로 양쪽에 두 개의 회의장으로 구성된다. 의사당 근처 강변을 따라 벤치가 놓인 산책로는 봄철 벚꽃 구경 명소로도 유명하다. 쪽 이어지는 한강의 산책로, 자전거도로, 공원에는 버드나무, 아까시나무가 풍성하

When South Korea experienced its great economic rise, this phenomenon became known as the “Miracle on the Han River.” In fact, the Han river is the site of many interesting buildings and places. While they are not miracles per se, they do form a necklace of attractions that features highlights of Seoul’s metropolitan architecture together with sites to experience and enjoy nature and wildlife. The mighty Han River, one of the “Four great Waterways” of Korea, makes Seoul one of the few major metropolises in the world with a wide river running through its center. In many spots it is more than one kilometer wide and 32 bridges span the distance.

One of the most recognizable icons of modern architecture along the banks of the Han (“han” means “great”), is the shimmering golden “63-City” in Yeongdeungpo-gu. It was designed by the famous American architectural office of Skidmore, Owings and Merrill (SOM) and completed in 1985. It is one of the best known skyscrapers in Seoul, not least because it looks like a giant gold bar. It is also nicknamed the “golden tooth.” The tower is famous for its prime location on Yeouido Island, overlooking the Han River, but also because of its height of 249 meters, making it the tallest building outside North America and Korea’s tallest until the Hyperion Tower surpassed it in 2003. The name of the building refers to its 63 stories. The tower was completed in time for the 1988 Summer Olympic Games Seoul, held a little upstream along the Han River. The tower serves as the headquarters of insurance companies and Banks. The 58th and 59th floor feature restaurants and the 60th floor houses an observation deck that allows visitors to see as far as Incheon on clear days. Glass elevators along the Southern short side of the tower enable passengers to view the city as they ride up. The lower floors house a mall, an IMAX Theater, aquarium, convention center and banquet hall. The unique shape is created because the lower floors are wider than the upper ones, creating a gentle “skirt”-like shape.

Not far away, from the Golden Tooth, the striking blue dome of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can be seen in Yeongdeungpo-gu. It was Chungup Kim, Joungsu Kim, Kwangho Lee and Youngbae Ahn, who designed this building of national importance in 1975. It is the seat of the legislative branch of government. Previously, the government used the General-Government Building, a remnant from

다. 이외에도 포플러나무·미루나무·참느릅나무·떡갈나무·자작나무와 더불어 고라니·너구리·두더지·수달·스라소니 등 70여 종의 동물군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강을 따라 더 내려가면 세계에서 가장 큰 세 개의 인공섬이자 28개의 체인으로 육지와 연결된 반포 한강공원의 ‘플로팅 아일랜드’가 있다. 반포대교 남단 끝에 위치한 이 섬은 세 개의 빛나는 떠 있는 섬이라는 뜻의 ‘세빛둥둥섬’으로도 알려져 있다. 꽃을 주제로 한 이 섬은 초기 당시 씨앗, 봉우리, 꽃의 개화 단계를 뜻하는 라틴어 비스타Vista·비바Viva·테라Terra(현재 명칭은 각각 가빛섬·채빛섬·솔빛섬)라는 이름을 가졌다. 만개한 꽃 모양을 한 가장 큰 섬 가빛섬(구 비스타)는 공연, 컨퍼런스, 전시를 위한 공간이다. 꽃잎은 유리로 겹겹이 형상화되었으며, 연극, 콘서트, 페스티벌에 적합한 공연장과 더불어 레스토랑, 반딧불이 정원, 전망대도 있다. 꽃봉오리 모양을 한 채빛섬(구 비바)는 비트스퀘어, 유스 우즈, 레스토랑, 야외 댄스홀로 구성된다.[현재의 가 빛섬과 채빛섬은 설계 당시와 다소 구조의 차이가 있다. 편집자 주] 꽃잎은 알루미늄 금속 패널로 형상화했으며, 패널의 사선 패턴은 만개한 꽃의 움직임 강조한다. 가장 작은 섬 솔빛섬(구 테라)는 씨앗의 형태를 본뒀으며, 수상 스포츠 시설과 정원, 클럽하우스, 강으로 뛰어 들 수 있는 수상 미끄럼틀을 갖추고 있다. 밤에는 LED 조명이 ‘안개 속 반짝이는 빛’이라는 테마로 빛난다.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추진한 이 사업은 도심 하천 디자인을 활성화했다. 세 섬은 부교로 연결되어 떠 있다. 강 수위가 요동치는 장마철 동안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동 계류 안전 시스템이 작동해 체인의 각도와 형태를 제어하며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강둑에서 먼저 조립해 건축한 뒤 보트처럼 강에 띄운 형태다.

강을 끼고 가다보면 1967년 유명한 이희태 건축가가 설계한 마포구 합정동의 절두산 순교성지를 만날 수 있다. ‘머리를 베는 산’이라는 뜻의 절두산은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암벽 곳으로, 이전에는 강을 지나는 나룻배를 위한 등대 역할을 했다. 바로 옆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함께 언덕에 자리잡은 이 순교성지는 이희태의 명작으로 여겨진다. 언덕은 1860년대 말 흥선대원군이 천주교로 개종한 조선인을 처형하던 장소였다. 1866년 병인박해 당시 이곳에서 천주교인 8천여 명이 고문당하고 죽음을 맞이했다. 병인박해 100주년을 기념하여 기념관이 건축됐고, 1984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방한 당시 이곳을 방문했다. 순교성지는 비극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으며, 1967년 박물관과 기념관이 추가로 문을 열었다. 말총과 대나무로 만든 한국 전통 모자, 갖의 모양을 본뜬 성지 위의 성당이 위치하고, 아래로

Japanese colonial times. With its 24 massive granite pillars and white exterior, the building visually dominates its neighborhood. It is the largest national assembly building in Asia. The building was an anchor for the urban development of Yeouido. The interior centers around the Rotunda Hall with the two main assembly halls on either side. A walking area with benches alongside the River becomes popular in spring, because it is lined with cherry trees. The Han is lined with walkways, bicycle paths, public parks with willows and locust trees. Poplar, Eastern cottonwood, lacebark elm, pin oak, birch. Around 70 species live in the Han River, including water deer, raccoon dogs, moles, otters, and lynx.

Further downstream on the Han River are the “Floating Islands” in Banpo Hangang Park. The three are “the world’s biggest faux islands,” tied to the mainland with 28 chains. The floating Island, near the southern end of Banpo Bridge, are known as “Sebit Dungdungseom” (“Three Floating Lantern Islands”). The flower-themed islets are called Vista, Viva and Terra, the stages of a blooming flower: a seed, bud, and blossom. Vista, the largest island, takes the form of a flower in full bloom and is a venue for performances, conferences and exhibitions. It is composed of layers of glass petals. and accommodates a hall for plays, concerts and festivals. Vista has a restaurant, firefly garden and observation deck. Viva looks like a flower bud and includes the Beat Square, Youth Woods, restaurants and an outdoor dance space. This island is characterized by an aluminum metal panel shell enclosed with petals. The diagonal patterning of the shell emphasizes the movement of the flower blooming. The smallest island, Terra, takes its form of a seed and has water sports facilities and a garden, clubhouse, and water slides that plunge into the river. The LED lights at night form the theme of ‘gleaming light in the mist.’ As part of the Han River Renaissance, initiat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ey stimulate the river landscape. The islands float via pontoons. In order to maintain stability against the fluctuating water levels in the monsoon season, the islands incorporate an automated mooring system. The angle and shape of the chains are controlled by Dynamic Positioning System to ensure stability. The construction required prefabricating the structure on the riverbanks, then launching it in the river, like launching a boat.



떨어지는 처마 곡선 모서리는 특유의 실루엣을 자아낸다. 예배당은 부채 모양으로 설계되었고, 종탑은 성당과 인접한 박물관을 연결하고 있다. 박물관은 지붕이 덮인 통로를 따라 이중 기둥으로 지탱되며, 원형 구멍이 있는 노출 콘크리트 종탑과 지붕은 강을 따라 펼쳐진 공간의 지형과도 조화를 이룬다.

강변에서는 더 먼 과거의 역사가 흐르는 인상적인 건축물을 발견할 수도 있다. 송파구 올림픽공원의 한성백제박물관은 2012년 김용미 건축가가 백제 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모티브로 하여 설계했다. 이곳에서는 백제 시대 유물뿐만 아니라 고구려·신라 등 한강 유역을 차지한 여러 왕조의 유물도 함께 전시하고 있다. 박물관 외관은 고대 왕국의 해상권을 보여주는 범선 모양으로 설계되었다. 백제는 한강을 지나 바다 건너 중국·일본과 무역하며 국력을 키워나갔기에 강변에 자리잡은 박물관의 위치에도 의의가 있다. 삼국 시대에는 군사·경제적 이유로 인해 국가의 흥망이 한강 유역에 달려 있었다. 한강은 과거 농업의 기반이자 중국과의 해상 무역을 위한 안정적인 운송로로 중요한 입지를 가진다. 현재는 더 이상 한강에서 화물 운송을 하지 않지만, 2025년 선착장 7곳에서 수상버스 운행을 시작했다. 골재 추출로 강바닥을 더 깊게 파내 대형 관광 여객선의 운행이 가능해졌다.

Along the river, an important historical site can be found in the shape of Jeoldusan Martyr’s Shrine in Hapjeong-dong, Mapo-gu, designed by the famous architect Heetae Lee in 1967. The Jeoldusan (or “beheading mountain”) is a rocky promontory overlooking the Han River. It once served as a lighthouse for the ferries on the river. The Martyr’s shrine dominates this hill next to Yanghwajin Foreigners’ Cemetery and is considered to be He-tae Lee’s architectural masterpiece. The hill came into use during the rule of the Daewon-gun in the late 1860s as a place of execution, primarily of Koreans who had converted to the Catholic faith. It was at this site that 8000 Catholics were tortured and killed during the Byeonin Persecution in 1866. The memorial was built in commemoration of the 100th anniversary. In 1984, Pope John Paul II visited the site. This shrine was built to commemorate the tragedy and a museum and memorial were added in 1967. The building contains a church above the shrine shaped like a gat, a Korean hat made of bamboo and horsehair. The corners of the eaves curve downward, giving it a characteristic silhouette. The chapel is designed to resemble a fan. A belfry connects the church and adjacent museum, which is surrounded by covered walkways held up by twin columns. The roof shape and the exposed-concrete belfry with a circular cut-out add to the site’s topography along the river.

A much more distant history is the theme of another interesting building along the river: The Baekje Museum in Olympic Park, Songpa-gu was designed by Yongmi Kim in 2012 and features the history and culture of the Baekje Kingdom. It displays relics not only from the Baekje Kingdom but also from the Goguryeo, Silla and other kingdoms that occupied the Han River basin. The exterior is designed like a sailing vessel to signify the maritime power of the ancient kingdom. The Baekje kingdom developed its power by trading with China and Japan via the Han River and the sea, thus the museum’s location by the river makes sense.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the fortunes of nations were tied to the Han River basin for military and economic reasons. The importance of the Han River stemmed from agriculture and secure transportation for maritime trade with China. While the Han River no longer plays a role in cargo transportation, in 2025, “river bus” began servicing seven ferry piers while aggregate extraction excavated the riverbed deep enough for larger tour boats.

# 노르웨이의 헨리크 입센 가꾸기

김미혜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노르웨이는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 달러에 육박하는 부국이지만 아픈 역사가 있다. 바이킹의 후예로서 노르웨이 왕국은 크게 번성했지만 14세기경부터 600년간 덴마크·스웨덴과 동군 동맹을 맺으며 속국이 됐다. 현재의 노르웨이는 1905년 스웨덴에서 독립했다. 헨리크 입센Henrik Johan Ibsen은 엄밀히 말하면 노르웨이-스웨덴의 시엔Skien에서 1828년에 태어났다. 부유한 가정의 아들이었지만 이내 부친의 사업 실패로 입센가는 풍비박산했다. 그런 가정환경의 영향도 있겠지만, 입센은 춥고 어두우며 음습한 노르웨이를 싫어했다. 노르웨이적인 연극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극작을 비롯해 연극의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경제·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입센은 무엇보다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구습에 싸여 사는 노르웨이의 국민성에 매우 비판적이었다. 이런 인식이 그가 나중에 사회문제극을 쓰는 밑거름이 됐다.

입센은 작가로서의 탈출구를 고국 노르웨이가 아니라 타국에서 찾았다. 그는 1864년 자의적으로 망명해 27년간 이탈리아와 독일에 머물렀다. 그의 대표작은 거의 이 망명기에 쓰였다. 특히 사상가적 면모까지 보이는 질문을 담고 있는 입센의 작품에 독일인은 열광했다. 그렇게 독일의 거점으로 입센은 '브란'1866, '페르 킨트'1867로 스칸디나비아에서 유명해졌고, '인형의 집'1879으로 세계적인 문명을 얻으며 당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공연권 수익을 올려 부와 명예를 거머쥔 작가로 부상했다. 입센은 드디어 노르웨이의 지방성provincialism을 극복했고 1891년 금

의환향했다. 입센은 노르웨이인으로 시작하여 스칸디나비아인으로 발전했으며 튜턴Teuton(독일) 정신에 도달했던 작가, 아니 명실상부한 연극인이고 예술가였다. 극장 운영, 연출, 무대미술, 의상디자이너까지 종합무진 활약한 희곡작가이자 시인·화가이기도 했으니까.

입센은 북유럽의 존재 없던 나라였던 노르웨이를 예술적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알린 첫 인물이었다. 노르웨이는 그런 입센을 어떻게 대접해왔을까? 입센을 기리는 노르웨이의 가장 크고 세계적인 프로젝트는 2008년 '국제입센상International Ibsen Award'을 제정한 것으로, 세계의 연극상 중 상금이 가장 많은 상이다. 처음엔 한화 약 5억 원이었으며 요즘은 3억 원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한다. 이상의 가장 큰 미덕은 세계 연극계 제1인자에게 수상한다는 점이다. 1회2008 수상자는 영국의 연출가 피터 브룩Peter Brook, 2회2009 수상자는 프랑스의 테아트르 뒤 솔레유Théâtre du Soleil(태양극단)의 대표이자 연출가인 아리안느 르누슈킨Ariane Mnouchkine이었다. 두 사람 모두 입센의 작품을 연출한 적이 없으나 그야말로 세계의 톱 클래스 연출가들이다. 2023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온 포세Jon Fosse는 이상의 3회2010 수상자였다.

또한 1990년부터 비엔날레로 짝수 해에 '입센 페스티벌 Ibsen Festival'도 열린다. 오슬로 국립극장을 주축으로 여러 극장에서 해외 작품과 노르웨이 자체 입센 프로덕션이 약 2주에 걸쳐 관객과 만난다. 또한 입센 작품에서 모티프를 얻은 젊은 예술인의 혁신적인 작품을 지원하는 입센 스코프 페스티벌Ibsen Scope Festival도 열린다. 2028년에는 입센 탄생 200주년을 맞이해 훌륭한 작품들이 노르웨이를 찾는 세계 예술가 및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오슬로는 입센의 도시다. 왕궁에서 큰길을 건너면 입센박물관Ibsenmuseet이 있다. 그 길의 바닥에는 입센 작품의 명대사가 동판 위에서 여전히 빛을 발한다. 그가 만년을 보낸 집이 박물관으로 재탄생했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입센의 혼이 담긴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다. 그런데 2025년에 또다시 오슬로를 방문한 필자는 입센 가구가 뭉크 가구에 뒤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뭉크 박물관Munchmuseet은 사람들 말에 의하면 "돈을 바른" 오슬로 오페라하우스 옆에 새로 오픈했고, 방문객이 정말



↑ 노르웨이 조각가를 기린 명소 비겔란 조각공원 ©Visit Norway

많았다. 한데 입센박물관 앞에 서 있던 지팡이를 들고 실크해트를 쓴 입센의 동상이 철거되고 없었다. 물론 입센 박물관 자체는 새 단장을 해놓았지만, 아마도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필자로서는 몹시 섭섭했다.

물론 노르웨이에서 입센 가꾸기는 여전하다. 입센박물관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국립 도서관 뒤쪽으로 오슬로 대학 부설 기관인 입센연구소(1993년 개소)가 있다. 이곳에서는 전 세계 문명국에서 출판된 입센 관련 서적과 출판물을 수집하고 있다. 2007년 이곳을 처음 방문한 필자는 한국어로 된 어떤 자료도 볼 수 없어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이 입센 평전을 쓰게 했다. 그리고 노르웨이어를 공부해 입센 희곡 전작을 번역하고 10권으로 출간하게 된

시발점이 됐다. 이제 그곳에선 한국어로 된 책을 볼 수 있다. 우리도 문명국이니까.

지난 3월 유럽에서 활동하는 연출가이자 작곡가·비디오 아티스트 구자하Jaha Koo가 2026년 국제입센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에서 공부하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예술대학에서 연극을 공부했으며,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표작으로 〈하리보 김치〉, 〈롤링 앤 롤링〉, 〈쿠쿠〉, 〈한국의 역사〉 등이 있다. "과장되고 요란한 것이 종종 최고로 여겨지고 찬사받는 세계에서 구자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방식을 제시한다. 요란하고 과장된 것 대신 친밀하고 섬세하며 작은 것들을 택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이는 실내악단의 우아한 연주와 같지만, 동시에 날카로운 사회·정치적 비판과 정체성, 이주, 민주주의의 침식에 관한 확장된 성찰을 담아낸다"고 심사위원단은 선정 이유를 붙였다. 상금은 250만 노르웨이 크로네(한화 약 3억 9천만 원)이며, 9월 26일 시상식 후 27일 노르웨이 국립극장에서 〈쿠쿠〉를 공연한다.

A

ARTS+  
예술가의 진심

금배섭,  
몸으로  
이야기하는  
삶



김예림 무용평론가 | 사진 Studio Kenn

제4회 서울예술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2년 전인가 심사위원 특별상 후보가 됐다고 공연 자료를 제출하라는 연락이 왔는데 수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고도 크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상 소식에 놀랄 수밖에 없던 것 같아요. 상금도 있다고 해서 또 한 번 놀랐죠. 예술계, 특히 무용 관련 상에 상금이 있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무엇보다 대상은 시상식 현장에서 발표되는데, “무용 부문…”까지 들으면 제 작품이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가만히 있다가 “누수”라고 제목을 듣고서야 ‘아! 우리 맞나보다’ 했어요. 그만큼 예상하지 못했고, 얼떨떨했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최우수상은 미리 발표된 덕에 소감을 준비했지만, 대상은 기대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무용에 관한 평소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무용을 늦게 시작해서 남들만큼 추려면 오래 살아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무가로 활동하면서 상을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로 다가왔나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수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한 것은 저와 제 작품을 대중에게 더 알리게 된 것 같아요. 서울예술상 시상식을 통해 대중화에 한 발 다가간 느낌이랄까요. 좋으면서 걱정도 됩니다. 많은 분의 이해를 얻는다는 건 제 작품이 쉽게 읽히게 된 것 같은데,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니까요. 이 상의 의미는 조금 시간이 지나야 제대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아내인 김풍년 작가가 서울예술상 수상자로는 선배인데요.

김풍년 작가는 2023년 작품 부문에서 연극 〈싸움의 기술, 줄〉로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번 서울예술상에서 포르쉐 프런티어상을 받았습니다. 수상작은 극단 작당모의 〈무릎을 굽었는데 겨드랑이가 따끔하여〉예요. 김풍년이 극작·연출을 맡고 저는 안무가로 참여했어요. 제가 안무한 출판야무 〈누수〉에는 김풍년이 드라마투르그로 참여했고요. 사실은 상을 받게 된 것을 두 사람 다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시상식 녹화 관련으로 문자를 동시에 받으면서 알게 됐어요.(웃음) 둘 다 ‘나만 만나, 어떻게 얘기하지’ 하고 고민하고 있었죠. 서로에게 잘 됐다고 축하했습니다.

사물의 성질과 무심함이 주는 재미를 찾아

작품 〈누수〉는 어떻게 만들게 됐나요.

처음에는 제목이 ‘누수’가 아니라 ‘광장’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광장에 대한 이미지를 찾다가 사람이 들어오고 뭔가 발생하고, 없어지고,

텅 빈 공간이 되는 곳. 그리고 어디로든 열려 있고, 무엇이 발생할지 모르는 생성과 소멸… 이런 걸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원금 신청서를 쓰고 있는데 드라마투르그 김풍년이 “제목 하나 줄까?” 하면서 어디서 본 간판 이름이라며 ‘현대종합누수’를 제안했어요. ‘누수’라고 하니 뭔가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것과 맞는 것 같았고, 광장의 개념보다는 더 좁혀지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저로부터 출발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고 또 빠져나가는 것은 무엇이며, 나간 것은 어디로 흘러서 무엇과 어떻게 만나지는지에 대해 생각하며 작업했습니다.

창작하는 데는 얼마나 걸렸나요.

워크숍을 두 달 정도 진행했고, 연습은 넉 달 했습니다. 총 여섯 달을 보냈는데 그전부터 계속 생각을 품고 있었죠. 짐중해서 과고들기보다 일상을 보내며 ‘누수가 뭐지’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김풍년 작가의 단체에서 매주 여는 철학 수업에 무용수들과 함께했습니다. 그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워크숍을 하며 생각의 방향을 조금씩 정해갔어요. 처음부터 결론을 내리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무용수들과 움직임을 찾아가며 이것이 누수의 감각인지 계속해서 확인하며 만들어갔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었나요.

요즘 제 관심사인 것 같은데, 알 수 없는 것들이 연결돼 만나고 그로 인해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는 과정 자체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누수’는 나에게서 빠져나가는 것이지만, 아무 의지 없이 빠져나가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그 의지가 있다면 저는 그 방향으로 더 나아갈 것이고, 이는 어떤 부분을 잘라내고 나아가는 진화나 퇴화가 되겠죠. 결국 상실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알 수 없는 것들이 흘러가서 무언가를 이루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생각했어요. 이번 대상 수상처럼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시간이 흐른 뒤 이 경험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돌아보는 과정을 작품에 담고 싶었습니다.

안무 의도를 이해하지 않아도 퍼포먼스 자체가 아름답고 흥미롭다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런 관객의 평소 감사하죠. 연습할 때 무용수들에게 움직임에 너무 많은 의미를 담으려 하지 말자고 이야기합니다. 의미를 강요하다보면 우리 이야기가 틀릴 수도 있거든요. 관객이 보기에 표현이 재미있



고 무언가를 느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누수〉에서도 그렇지만, 이전 작업도 일상의 오브제를 다르게 보이게 합니다.

〈누수〉에서는 비닐을 선택했어요. 페인트를 칠할 때 덮는 얇은 비닐인데, 그것으로 물과 연관 있는 걸 찾으며 이것저것 해 봤죠. 그러다 양쪽에서 잡고 날려봤는데, 물을 막는 용도인 비닐이 오히려 물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테이프와 플라스틱 손가락은 물방울이 맺히고 흐르는 느낌이 나서 사용했습니다. 꽃가루가 날리다 테이프에 딱 붙는 장면은 마치 갑자기 시공간이 정지된 듯한 느낌이 들어 재미있더라고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연습실에서 이른바 ‘삼질’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 사물의 성질이 연결될

제4회 서울예술상 대상 수상작  
출판야무 〈누수〉

수 있는지 지지고 볶으며 확인하는 거죠. 작품이 안 풀릴 때는 ‘나 다이소 좀 다녀올게’ 하기도 합니다.(웃음)

저는 익숙한 사물이 낯선 감각을 주는 지점이 좋습니다. 오브제는 감정 없이 자신의 성질대로 작용하고 끝나기에 더 명확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누수〉에서 팽팽했던 종이 물에 젖어 툭 끊어지는 장면처럼, 사람의 몸으로는 흉내 낼 수 없는 그것이 재미있어요.

재공연한다면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공연 당시에는 아쉬운 점이 잘 안 떠오르는데, 막상 영상으로 작품을 다시 보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재공연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시도를 해볼 것 같아요. 그런데 초연 버전에서 많은 부분을 바꿔도 관객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수정하겠다고 미리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홀로, 또 오래 춤춘다는 것

무용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계속해서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저는 복 받은 사람 같아요. 주위의 많은 동료들이 무대를 떠났어요. 무용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상을 받으니까 더 확실히 느껴져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생각하면 저를 도와준 동료나 선배들이 떠오릅니다. 물론 힘들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막상 그만두려고 하니 할 수 있는 게 없고, 막막한 거예요. 한때는 연극 작품의 안무 작업이 들어오면 하곤 했어요. 지금은 제 작업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무용의 어떤 부분이 지금의 자신을 끌어냈다고 생각하나요.

체육대학을 졸업하고 우연히 매슈 본(Matthew Bourne)의 <백조의 호수>를 봤어요. 1부가 끝나고 인터미션을 보내면서 공연이 좋다는 생각보다 '왜 나는 저런 걸 어릴 때 접하지 못했지. 경험했다면 나도 저런 거 했을 텐데' 하면서 막 속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부를 봤는데 더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춤이 좋아진 것 같아요.

무용은 처음 어떻게 시작했나요.

연기를 배우고 있던 때였는데, 선생님께서 무용을 배워보라고 권하셨습니다. 편입 시험을 준비하다가 세종대학교에 진학하게 됐어요. 무용과에 들어가보니 일단 언어 자체가 해석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선배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부모님께는 비밀로 하고 다녔습니다.

대학 졸업 후 '차세대 안무가 인큐베이팅'에 참여한 것이 변곡점이 됐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2011년 차세대 안무가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쳐 결과물 <보이는 것에 대하여>를 발표했습니다. 다음 해 아르코예술극장 기획 '라이징 스타'에 선정돼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공연했고요. 프리젠테이션 하면서 안 좋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지나고보니 '라이징 스타'에서 공연했다는 게 제 작품이 우수작으로 선정된 것이더라고요.

그 후에 솔로 연작을 시작했죠? 1시간 길이의 다섯 작품을 모으니 5시간이 넘더군요.

연작을 생각해서 솔로 작품을 발표한 건 아니었어요. 지원금을 못 받

고 무용수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혼자서라도 해 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 것이 2013년 시작해, 2021년에는 다섯 편의 솔로를 모은 <오>를 5시간 30분간 공연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솔로 작품으로 2023년 <달아가는>, 2025년 <바흐>를 발표했습니다.

무거운 주제 속에서도 웃음을 자아내는 장면이 많습니다. <네가 사람이나?><sup>2017</sup>의 하이힐 장갑이나 <포옹><sup>2020</sup>의 대형 롤러가 기억나네요. 저는 진지하게 작업하는데 관객들이 웃으실 때가 있더라고요. <포옹>에서 에어캡을 전부 터뜨리기 위해 테니스장 롤러를 끌고 나왔을 때 스태프들이 웃는 걸 보고서야 그게 웃긴 장면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일부러 유도한 것은 아니지만 사물의 생경한 쓰임이 관객에게 그렇게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떤 공연을 계획하고 있나요.

8월 창무국제공연예술제 개막공연에서 <바흐>를 공연하고, 12월에는 서울무용창작센터에서 <사이>를 재공연할 예정입니다.

다음 신작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요.

올해는 신작 작업을 쉬면서 기존 작품을 발전시키고 싶다는 고민이 있습니다. 매년 신작을 내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연결되고 만나는가'라는 주제는 계속 품고 있습니다. 우연히 만나는 것들이 어떤 형태로 무용이 되는지, 그 시작과 과정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소망하는 일이 있다면요.

예전에 '춤판야무 심야극장'을 하며 '그 자리에 가면 있는 극장'을 꿈꿨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작업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남고 싶어요. 누군가가 저를 떠올릴 때 "거기 가면 항상 작업하고 있을 거야"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술가가 되고 싶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을 전해주세요.

의미를 몰라도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재미있었다는 관객의 소감을 이야기해주셨는데, 저도 그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세상에는 이해되는 일이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용 작품도 그렇게 몇 번 보다보면 재미있어지니, 공연장에 많이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 구민들을 지역예술가 팬으로

## 광진문화재단 박계배 사장

최희정 뉴시스 기자

“구민들이 지역 예술가들의 팬이 된다면, 예술가들이 공연을 통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고 예술 생태계도 구축될 수 있습니다.”

박계배 광진문화재단 사장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취임 2년 차를 맞은 그가 특히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활동 중인 예술가, 단체 그리고 예술가로서 첫 도약을 앞둔 예술대학 졸업생들이다. 광진문화재단은 인적 문화자원을 활용해 광진구 안에서 예술가들이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청년예술 지원사업 ‘청춘 아트 브릿지’와 나루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살롱 음악회’를 진행하고 있다. 박계배 사장이 지역 예술가를 지원하는 데 공을 들이는 이유는 관내에 숨은 예술적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를 역임한 그는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관내 예술인 규모에 주목했다.

“광진구에 거주하며 예술활동증명을 마친 예술인은 약 2,700명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11번째로 많지만, 정작 재단 사업에 신청한 인원은 120여 명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로 닫혀 있던 이들의 마음을 열고 재단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도록 기획한 것이 바로 살롱 음악회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 광진문화재단 나루아트센터 1층 스페이스76에서 열리는 살롱 음악회는 나루 아티스트로 선정된 관내 예술가들이 직접 꾸미는 토크 음악회다. 구민들은 단돈 1천 원에 편안한 분위기에서 고품격 공연을 즐길 수 있다. 핵심은 예술가에 대한 ‘정당한 대우’다.

“그저 동네에서 봉사하듯이 무대에 서는 것이 아니라, 외부 무대에서 받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출연료를 지급합니다. 돈을 제대로 받고 구민 앞에서 공연을 하다 보면, 이들을 내 팬으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 팬층이 형성돼 자급자족할 힘을 키워주는 일, 그것이 진짜 생태계 구축입니다.”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예술가와 구민의 정서적 거리를 좁히는 작업도 병행한다. 구민이 예술의 치유 기능을 직접 체감해야 예술가의 든든한 팬이자 후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부부 발레’ 프로그램이다. 사이가 소원해진 중장년 부부가 함께 발레를 배우며 관계를 회복하는 이 과정은 참가자들에게 감동을 준다.

“처음엔 따로 오던 부부가 나중엔 손을 붙잡고 갑니다. 40~50대 부부들이 발표회를 하는데, 서로에게 쓴 편지를 낭독하며 눈물바다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술이 가진 치유와 소통의 힘이지요. 지난해에는 10여 쌍이 소공연장에서 발표했지만, 올해는 15쌍으로 늘려 더 넓은 공간인 스튜디오601에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15쌍이면 총 30명이 출연하는 것이지요. 이 프로그램도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 재단, 모두를 잇는 다리가 되다

광진구만의 특별한 지리·인구적 특성도 예술 생태계



구축의 중요한 자산이다. 광진구 내 건국대학교와 세종대학교 학부생 4만 명 중 예술·체육·디자인 등 관련 학과 졸업생만 매년 수백 명에 달한다.

“이들이 졸업과 동시에 무대를 잃고 방향하지 않도록 돕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청춘 아트 브릿지’를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관내 예술대 졸업생에게 재단의 전문 공연장과 인프라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졸업 공연을 단순히 학교 안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재단으로 가져와 전문 스태프의 도움을 받아 사회로 넘겨주는 일종의 마켓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 재단 직원들이 직접 기획부터 홍보 마케팅, 무대 조명, 음향까지 멘토로 붙여 재공연을 올릴 수 있도록 브리지(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 초 연극과 음악(성악·피아노·관현악) 등 여러 장르에 걸쳐 총 7회의 청춘 아트 브릿지 공연이 성황리에 진행됐다.

박계배 사장은 지역 문화예술의 모세혈관이 활성화되기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서울문화재단 등 상위 기관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광역·국가 단위 단체들이 자체 사업을 대규모로 운영하기보다는, 지역 일선에서 주민과 예술가를 연결하는

기초문화재단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기관인데, 자체 사업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 광역시·도에 지원한다면, 지자체에서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치구 문화재단에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예술위가 지원해준다면 자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 그러한 지원을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각자의 색깔을 담은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이를 묶어주는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우리 동네 음악회’처럼 수준 높은 콘텐츠를 자치구와 협업해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을 긍정적인 사례로 꼽았다. 상위 기관의 예산이 기초문화재단의 현장성 있는 사업에 매칭될 때 더 큰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끝으로 그는 예술인이 지역 상권과 상생할 수 있도록 예술인 파견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고 했다. 예술가들이 단순 노무로 생계를 잇는 대신, 전공을 살린 예술적 부업을 할 수 있도록 재단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술가들이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협업하여 매출 증대에 힘써주거나, 지역 공부방의 발달장애 아동에게 연극과 무용을 가르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이다. 주민이 예술가의 재능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면, 예술가를 ‘지역에 꼭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

“예술가들이 밤새워 물류창고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대신, 관내 소상공인 가게나 소외계층 교육 현장에 파견되어 자신의 전공으로 땀을 흘리도록 돕고 싶습니다. 관내 예술인들이 재능을 펼쳐 보이고, 주민은 이들을 보며 ‘돌을 금으로 만드는 사람들이구나’ 하고 인식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주민이 그 혜택을 피부로 느끼며 예술가가 지역에 꼭 필요한 존재임을 인식하게 될 때, 이들을 위한 세금도 기꺼이 낼 수 있는 선순환이 완성됩니다.”

광진문화재단에서 열린 3월 살롱 음악회 모습



## “우리의 이용자는 미래에 있다”

## 이지희 아키비스트

박채림 [문화+서울] 에디터 | 사진 Studio Kenn

2013년부터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미술 아키비스트로 근무하고 계시지요. ‘미술 아키비스트’는 어떤 일을 하나요? 미술 아키비스트는 작가의 작품이 탄생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기록·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관람객은 완성된 작품을 보지만, 그것만으로 작가의 예술 세계를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아키비스트는 일기, 아이디어 노트, 드로잉 등 작업 이면의 자료를 수집·연구해, 대중이 작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아카이브센터 개관 초기부터 함께해왔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오랜 시간 작품을 수집해왔지만, 2013년 입사 당시만 해도 작가의 세계 이면을 체계적으로 담은 아카이브 구축은 미비했습니다. 아틀리에에는 중요한 기록이 많았지만, 작가 사후에는 사라지거나 버려

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미술관은 소멸 위기 자료를 보존한다는 사명 아래 1920~30년대생 근대 초기 작가의 기록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점차 미술계 전반의 인식과 환경을 서서히 변화시켰고요. 예를 들어 과거에는 대중이 이중섭을 ‘황소’로만 기억했다면, 이제는 드로잉·노트·편지화 등을 통해 그의 삶과 내면을 입체적으로 이해합니다. 아카이브는 미술사의 지평을 넓히고, 작가와 작품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엽니다. 기록으로 예술의 토대를 다지는 일, 그것이 아카이브의 가치이자 매력입니다.

아키비스트로서 ‘일의 기쁨’을 느낀 순간을 들려주세요. 아카이브 수집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작가의 작업실을 찾습니다.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고췌 이성자 작가의 아틀리에를 방문했던 경험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이성자는 1950년대 프랑스 미술계에서 주목받으며 세계에 이름을 알린 추상화가입니다. 작가는 떠났지만, 삶의 흔적이고 스란히 남은 공간에 들어서서는 순간, 멈춰 있던 시간으로 들어가는 듯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작가의 내밀한 삶에 스며드는 공감각적 경험이었죠. 그곳에 며칠 머물며 개인 기록을 읽다 보면 어느새 작가의 내면에 깊이 닿게 됩니다. 때로는 가족보다 더 깊이 그 삶을 이해하는 순간이 오는데요. 그때 아키비스트로서 말로 다 하기 어려운 기쁨을 느낍니다.

한 번은 다른 작가의 컬렉션을 정리하다 우연히 이중섭 작가가 자신의 그림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작은 사진 한 장을 발견한 적도 있습니다. 미술계에 최초로 공개되는 사진이었지요. 요절한 고췌 최육경 작가의 가족조차 몰랐던 고등학교 시절 스케치북 문지를 정리하며, 작가의 작품을 내 손으로 직접 처음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 작가와 일대일로 마주하는 순간, 이 일의 의미를 실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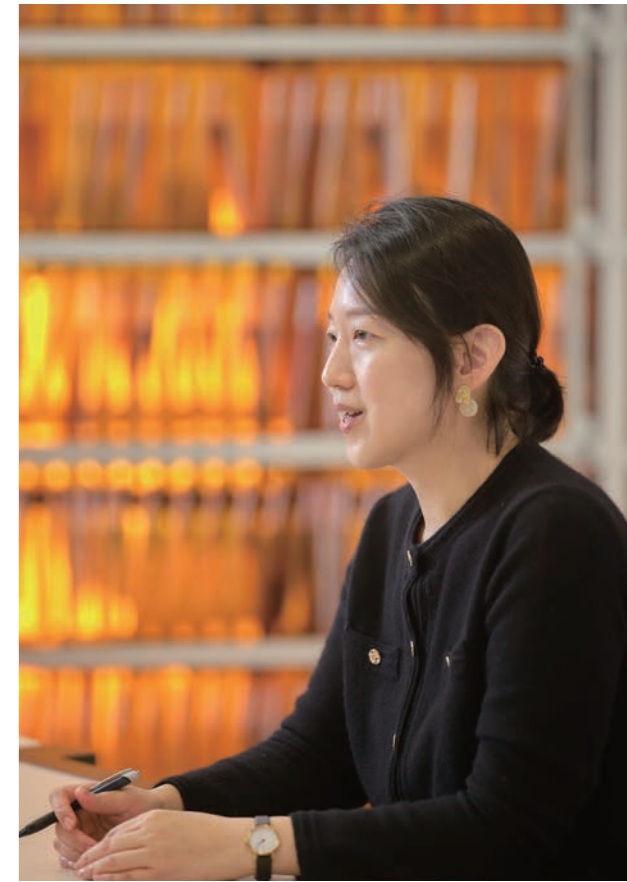
이후에는 작가의 공간에 남은 기록에 ‘논리적 질서’를 부여하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는 삶의 맥락을 훼손하지 않는 일이 중요합니다. 정리된 자료와 연구가 전시로 이어져 관람객에게 전달될 때, 일의 기쁨을 넘어 비로소 아키비스트의 역할이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긴 호흡의 작업인 만큼 아키비스트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까요. 농담처럼 말하지만 '체력'과 '인내심'이 꼭 필요합니다. 아키비스트는 성과가 즉각 드러나지 않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백남준 아카이브 전시《백남준 효과》(2022년 11월 10일부터 2023년 2월 6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를 준비할 때도, 전시 기간보다 수년간 이어진 자료 수집과 구술 채록, 인터뷰와 연구 과정이 더 길고 중요했습니다. 결국 이 일은 결과보다 과정을 견디고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사실탐정처럼 연도 미상의 드로잉 한 점을 두고 자료를 추적해 제작 시기를 밝혀내야 하지요. 그 과정 자체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다면 아키비스트로서의 자질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록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직업적 철학이 궁금합니다. 자신의 소중한 기록을 선뜻 내어주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공립기관에 속한 아키비스트에게 '공공성'과 '사명감'은 필수입니다. 100년 전에는 흔하던 백자가 오늘날 보물이 된 것처럼, 현재 작가의 스케치 한 점이 미래에 어떤 의미를 지닐지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아카이브센터가 더 많은 관람객을 맞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우리의 이용자는 미래에 있다'고 대답합니다. 먼 미래의 연구자를 위해 오늘 기록의 가치를 보존하는 일이 바로 아키비스트로서 제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아카이브가 '보존'과 '관리'에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대중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습니다. 1980년대 기록학에서는 아키비스트와 이용자의 관계를 판옵티콘의 간수와 죄수에 비유했습니다. 훼손과 도난을 막는 관리 중심의 역할이었죠. 지금의 아키비스트는 다릅니다. 이용자의 목적과 취향에 맞춰 자료를 제안하는 '서비스 제공자'에 가깝습니다. 아카이브센터도 연말을 목표로 디지털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다. 기존 텍스트 중심 정보에서 나아가, 이종섭·박수근·김환기·백남준 등 주요 작가의 아카이브 약 10만 점을 이미지로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방대한 자료 중 의미 있는 콘텐츠를 선별해 보여주는 과정 또한 하나의 '큐레이팅'으로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아카이브센터의 향후 계획과 개인적인 바람이 궁금합니다. 그동안 국내 작가 자료를 축적했다면, 이제는 이를 확장하고 연결하고자 합니다. 자체 개발한 아카이브 시스템을 전국 국공립 미술관에 보급해 어디서든 표준화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후배 아키비스트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근 일본 미술 아카이브 기관과 협약을 맺어, 일본에 남아 있는 근대 한국 작가 자료를 디지털화해 공개하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프랑스 등으로 협력 국가를 넓혀 국립현대미술관을 한국 미술 아카이브의 국제 허브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후배 아키비스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처음 길을 닦은 사람으로서, 이 길을 따라오는 후배들이 더 넓고 풍부한 저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 고요손

시각예술/조각

@goyoson

goyoson.kr

2026 금천예술공장 입주작가  
제3회 서울예술상 포르쉐 프린티어상

조각을 하고 있는 고요손이라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 조각을 특정한 기능이나 역할을 갖는 것으로 다루며, 그것이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실험합니다. 작업은 하나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가 사용하거나 경험하는 과정에서 다른 성질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조각이 기념물처럼 놓이기도 하고, 반대로 먹거나 소비되는 방식으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비를 통해 조각이 유지되는 방식과 소멸하는 조건을 함께 드러냅니다. 이를 통해 조각이 하나의 정의에 고정되지 않고, 다양한 쓰임 속에서 다르게 작동할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창작 활동이라고 부를 만한 행위를 자연스럽게 이어왔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집에서 혼자 온갖 물건으로 집을 만들거나, 테이프를 늘어뜨려 벽과 벽 사이를 선으로 뿅뿅하게 채우는 식의 놀이를 반복하곤 했습니다. 또 현실로 구현하기 어려운

거대한 덩어리를 상상하며 자연 풍경 위에 그것들을 올려놓는 장면을 혼자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무언가를 만드는 행위에 흥미를 느끼다가 고등학교 때 미술부에서 처음으로 전시를 하게 됐고, 그 경험을 통해 관객과 작업을 나누는 일의 매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인이 되어 '밴드 바우어'라는 컨셉추얼 밴드이자 다윈 예술 그룹을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미술을 하면서도 무대에 서고 싶다는 욕망을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악기를 다루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무대에 서는 방식을 고민하던 중, 제가 만든 조각들이 저와 함께 무대에 선다면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설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 계기로 지금의 작업을 이어오게 됐습니다.

특정한 순간이라기보다, 작업을 이어오면서 점진적으로 예술 활동을 한다고 체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명하게 자각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동경하던 예술가들과 협업하거나 관객과 작업을 통해 직접 소통할 때입니다. 또한 머릿속에 그리던 조각을 실제로 손으로 깎아 완성하고, 그것이 하나의 대상으로 눈앞에 놓이는 순간

에 제가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스스로 하나의 대표작을 꼽기는 아직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재 작업마다 드러나는 내용과 다루고 있는 이야기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특정하기보다는 여러 흐름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나눠본다면, 조각을 하나의 주인공으로 두고 다양한 극의 형식으로 풀어낸 작업이 있습니다. 퍼포머 15명과 함께 매일 다른 조각의 움직임을 실현한 첫 개인전 《미셀》을 비롯해, 조각활용극을 포함한 시낭독 전시나 고백극 등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또한 제가 좋아하는 두 가지 요소인 조각과 디지털을 새로운 맥락으로 풀어낸 '먹는 조각' 시리즈 역시 관객에게 인상 깊게 받아들여진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에는 세 번째 개인전 《결》을 진행했는데, 처음으로 제 주변인이자 협업자들의 이름으로 작품명을 붙여 작업을 구성했습니다. 이후

에도 이러한 방식을 이어가며 작업을 통해 주변을 호명하고 관계를 드러내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여전히 주변 사람들을 떠올리며, 관계에서 주고받는 마음의 형태를 조각으로 풀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하나 응원처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상에서 점점 희미해지거나 충분히 표현되지 못하는 감정의 표현 방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감은 때마다 다르게 찾아오는 것 같고, 삶 전반에서 갑자기 튀어 오르거나 제 안으로 스며드는 어떤 순간에서 얻곤 합니다. 특정한 대상이라기보다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감각이나 장면이 자연스럽게 축적되면서 작업으로 이어지는 편입니다. 특히 자연을 볼 때 그 원초적인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여러 형상을 상상하게 되고, 훌륭한 음악을 들 때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곤 합니다. 그렇게 떠오른 이미지들이 조각의 형상으로 이어지거나, 때로는 연극을 구성하는 하나의 시나리오로 확장되기도 합니다. 또 함께 걸을 나누며 살아가는 주변인의 특정한 상황이나 감정이 담긴 이야기를 듣



다보면, 그 일부를 끌어와 전면에 드러내고 관객과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제 주변인과 나누는 사랑, 그들이 건네는 마음의 방향과 형태를 따라가며 많은 영감을 얻고 있습니다.

《결》 전시 전경 ©이서기

대해 좀 더 본질적인 측면을 투영하게 되는 흥미로운 작업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기억과 감각, 그리고 관계를 다루는 제 작업의 방향과도 맞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인상 깊게 본 작품으로는 클라리시 리스펙토르의 소설 『별의 시간』과 티아고 호드리게스 연출 〈바이 하트 By Heart〉가 있습니다. 『별의 시간』은 네덜란드를 여행하면서 완독한 책인데, 대부분 시간을 혼자 보내는 여행이라 책 속 인물들과 함께 여행하는 듯한 감각으로 몰입해 읽었습니다. 특히 화자가 서서히 주인공을 드러내는 시선의 방식이, 여행하는 동안 제 상태와 긴밀하게 맞아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면적이면서도 입체적인 인물의 특성에 공감이 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이해되지 않아 답답함이나 감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몰입해 여러 생각을 확장해준 책이었습니다. 〈바이 하트〉는 책을 읽으며 셰익스피어의 시를 함께 외워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시를 외운다는 행위와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사랑과 연극, 배우라는 직업에

앞서 이야기한 부분을 계속 이어가며, 지금까지 이어온 작업의 방향을 밀도 있게 발전시켜나가고 싶습니다. 특히 조각을 하나의 대상이자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방식으로 다뤄온 흐름을 바탕으로, 그 안에서 드러나는 감각과 감정의 층위를 좀 더 섬세하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7월에는 가장 친한 친구와의 2인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서로의 작업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관계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주고받아왔기에 세계는 무엇보다 뜻깊은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가까운 관계 안에서 함께 작업을 만들어가는 만큼, 드러내기 어려운 마음과 생각을 평소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꺼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지점이 전시 안에서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지 기대가 큼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서울과 암스테르담에서 '놀이' 혹은 '놀이터 playground' 요소를 바탕으로 한 참여형 설치와 오브제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작업은 단순히 공간을 구성하는 설치를 넘어, 관객이 개입하고 경험하면서 완성됩니다. 오브제 단위로 존재하면서도, 그것이 모여 하나의 환경을 이루고 그 안에서 관객의 행위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작업에 '놀이'라는 형식을 빌리지만, 그 안에 담기는 내용은 비교적 가볍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관객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작하지만, 경험 이후에 남는 감각이나 질문은 좀 더 오래 머무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비교적 늦은 시기인 스물일곱에 창작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외국계 광고 회사에서 광고기획자<sup>AE</sup>로 일하며, 클라이언트의 메시지를 기반으로 광고 전략과 브랜딩 캠페인을 기획하는 일을 했습니다. 브랜드의 방향에 맞게 논리를 세우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작업이었죠. 광고업계가 흔히 창의적인 분야로 여겨지지만, 제게는 오히려 '설득을 위한 논리, 논리를 위한 논리'가 반복되는 구조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 애매하게 남아 있는 이야기들이요. 우리 삶의 고민은 대부분 명확한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상태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으면 제 덕이고, 별로면 제 탓인 상태에서, 그 어떤 기준이나 누구의 개입 없이,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꼭 정답을 제시하기보다는 논란이 생기더라도 사람들이 한 번쯤 생각해볼 수 있는 지점을 남기는 작업이요. 누군가의 요구에 맞춘 결과물이 아니라, 자신의 질문에서 출발하는 작업을 해 보고 싶다는 생각, 그것이 지금의 활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를 완전한 의미의 예술가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직업인으로서의 예술가로 자리잡기 위해 계속해서 시도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창작을 하며 살아가고 싶



# 이승진

시각예술/설치

@leesngjin

www.leesngjin.com

2026 신당창작아카데미 입주작가

다고 느낀 것은 분명합니다. 한없이 가벼운 제가 입 밖으로 내뱉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고민은 종종 술자리의 헛소리로 치부되고는 합니다. 늘 우스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 제가 갑자기 진지한 얘기를 꺼내는 순간,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지기도 하지요. 일상에서 그렇게 가볍게 소비되던 제 말과 생각이 작업을 통해 다시 다뤄질 때, 그것이 단순한 사담이 아니라 하나의 사유 대상으로 전환되고는 합니다. 제게 있어 예술은 어떤 메시지를 나누고 공유하는 개념을 넘어 '내면의 나와 외면의 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작업을 통해 나의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제가 계속해서 예술을 이어가고 싶은 이유가 됩니다.

'Anyone's Anything'은 지금의 작업 방향을 잡는 데 큰 전환점이 된 프로젝트입니다. 사회적 금기에 대한 시선을 '놀이'의 방식으로 풀어낸 설치 작업으로, 성인의 세계에 속한다고 여겨지는 오브제를 놀이기구처럼 확장해 당연한 시각을 낫설게 다시 경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혹스러움이나 거부감이 생기기도 하지만, 전시 공간이 점차 하나의 '놀이터'처럼 작동하면서 관객들은 심리적인 경계를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참여하게 됩니다. 이 작업은 독일 및 네덜란드 현지 매체와 더치 디자인워크 등 플랫폼을 통해 소개되며, 놀이적인 접근이 사회적 담론으로 확장할 가능성을 체감하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로도 '놀이'와 '시리어스 펀<sup>Serious Fun</sup>'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객이 웃음을 통해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메시지에 접근하게 되는 구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작업 이전에는 작가 소개에 "유머러스하게 작업을 풀어나간다"는 문장을 적어두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마치 '저 재미있는 작업하는 사람이예요'라고 스스로 말해버리는 것 같아서, 오히려 강요하는 느낌이 들어 괜히 민망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마치 '저 웃기죠?' '웃기잖아요'라고 먼저 말해버리는 코미디언 같은 기분이었어요. 지난 프로젝트를 통해 놀이의 형식으로 접근했을 때 오히려 더 자연스



럽고 직관적으로 웃음과 함께 메시지가 전달되고 공유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로는 스스로를 굳이 그렇게 정의하거나 설명하지 않아도, 작업 안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제 작업의 영감은 형태 없이 떠다니는 생각들에서 비롯됩니다. 가만히 앉아 과거를 떠올리거나, 최근에 겪은 상황들, 혹은 일상에서 마주한 사소한 장면을 계속 곱씹으면서 작업의 단서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책상 위 달력 속 날짜들이나 어제 만난 사람과의 사소한 언쟁, 때로는 막연한 상상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편입니다. 특히 하나의 상황을 단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과장된 상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하기보다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작업 역시 그러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제 작업이 하나의 방향으로 정의되기보다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상태로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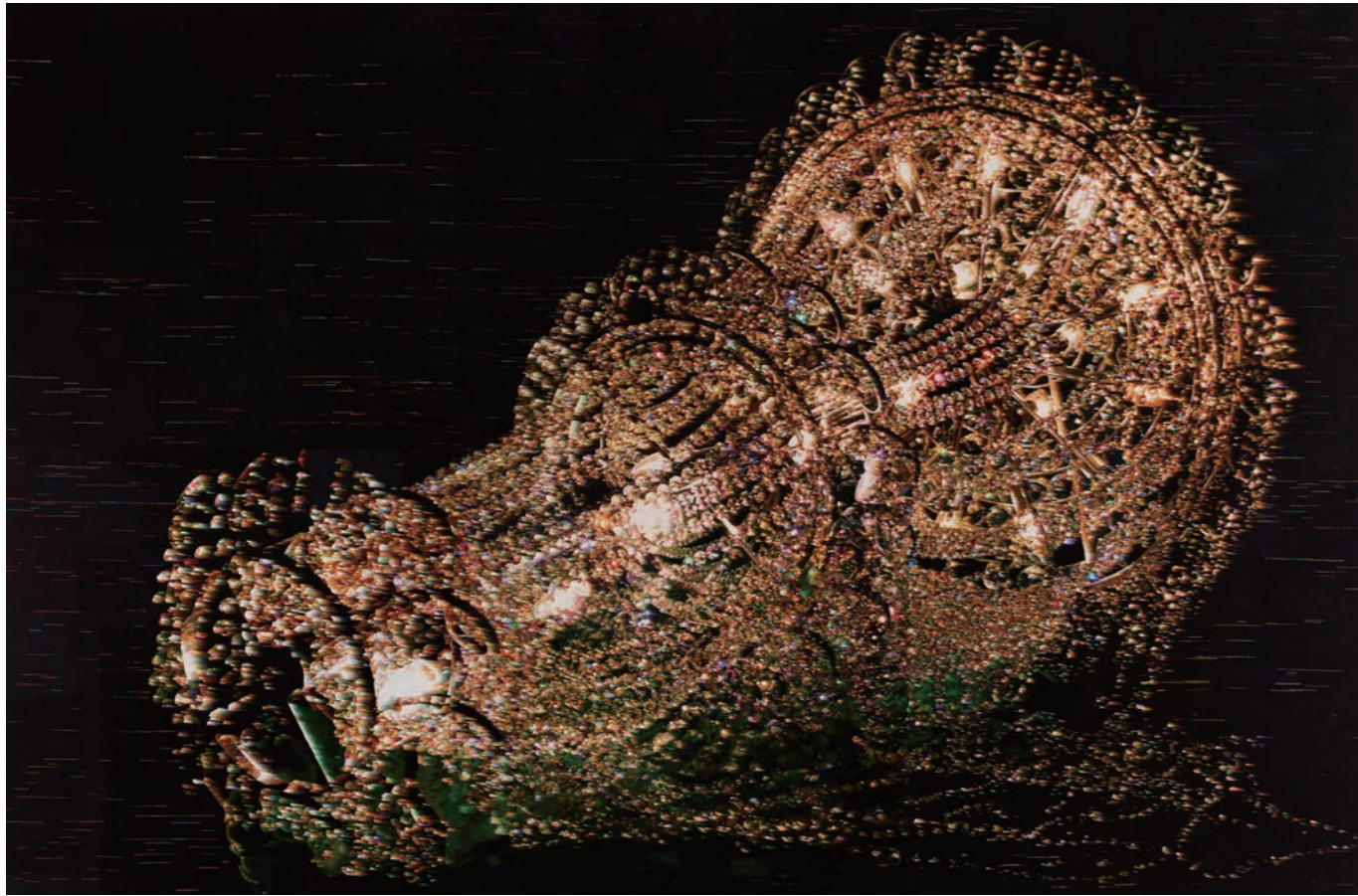
넷플릭스에서 <보 번햄: 못 나가서 만든 쇼 Bo Burnham: Inside>를 여러 번

'Anyone's Anything' 프로젝트

주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밝고 유쾌한 형식으로 전개되지만, 그 안에는 냉소·불안·

고립감 같은 감정이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웃기지만 마냥 웃기지만은 않은 상태, 그 이중적인 감각이 계속해서 이 작품을 보게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가볍게 보이지만 어딘가 불편하고, 모순적인 감각이 동시에 존재하는 제 작업 역시 블랙코미디와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대중문화 작품을 많이 접하는 편입니다. 그 안에는 결국 다들 한 번쯤 겪어본 감정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점이 제 작업을 확장하는 데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줍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언제나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누구나 한 번쯤 느껴봤을 감정이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는 놀이 기반의 설치 작업을 '가구화'하는 시도를 해 보고 있습니다. 전시실에만 머무르는 작업이 아니라, 일상에서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오브제의 형태로 풀어내는 것이 요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특히 '놀이'와 '시리어스 펀'이라는 개념을 홈스케일의 오브제로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작동하면서도, 여전히 어떤 질문이나 감각을 남길 수 있을지 고민 중입니다.



함경아(b.1966)  
 〈당신이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다섯 개의 도시를 위한 상들리에 BR 01-04〉  
 2016-17  
 North Korean hand embroidery, silk threads on cotton, middle man, anxiety, censorship, ideology,  
 wooden frame, approx. 2200hrs / 4 persons  
 250 × 382cm  
 Private collection  
 사진 김현수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문화+서울] 주요 배포처**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 금천예술공장 노들섬 대학로예술극장 두산아트센터 문래예술공장 블루스퀘어 상명아트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남산국악당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서초/양천/용산/은평 서울문화재단 본관/대학로센터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서울시50플러스 남부/서부/중부캠퍼스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연극창작센터 서울장애인예술창작센터 신당창작아카데미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학창작촌 유종아트센터  
 중랑아트갤러리 청년예술청 KT&G 상상마당 외



[문화+서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치로 발간되므로 별도로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시면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응원  
 이

서울문화재단  
 후원하기



서울의  
 예술  
 이  
 키  
 업  
 니  
 다

문화+서울  
 서울문화재단  
 예술이  
 되다